

4世紀의 韓日關係史

-廣開土王陵碑文의 倭軍問題를 中心으로-

金泰植

【國文抄錄】

- | | |
|---------------------------|----------------------|
| I. 머리말 | 3. 百濟의 武裝體系 |
| II. <日本書紀> 神功皇后 關聯記事의 問題點 | 4. 加耶의 武裝體系 |
| 1. 神功紀 49年條 記事의 研究史 | 5. 倭의 武裝體系 |
| 2. 神功紀 49年條 記事의 意味 | V. 4世紀 東아시아 情勢와 韓日關係 |
| III. 廣開土王陵碑文의 倭記事와 그 性格 | 1. 中國의 情勢 |
| 1. 辛卯年 記事의 檢討 | 2. 高句麗의 情勢 |
| 2. 永樂九年己亥條의 檢討 | 3. 百濟의 情勢 |
| 3. 永樂十年庚子條의 檢討 | 4. 新羅의 情勢 |
| 4. 永樂十四年甲辰條의 檢討 | 5. 加耶의 情勢 |
| 5. 碑文 所載 倭軍의 性格 | 6. 倭國의 情勢 |
| IV. 韓國과 日本의 4世紀 武裝體系 比較 | 7. 4世紀의 韓日關係 |
| 1. 遺蹟 概觀 | VI. 맺음말 |
| 2. 高句麗의 武裝體系 | 【文獻目錄】 |
| | 【史料集成】 |

【國文抄錄】

4世紀의 韓日關係史

金泰植

4세기의 한일관계사에 대해서는 任那日本府說에 입각하여 4세기부터 한반도 남부는 일본열도의 왜국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가설이 있었고, 이는 <日本書紀>와 廣開土王陵碑文에 대한 피상적 이해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倭의 임나 정벌을 기록하고 있는 《日本書紀》神功皇后 관련 기사에 대하여, 근래의 학자들은 그 기사 및 사실을 모두 부정하거나, 또는 그 주어를 백제로 바꾸어 이해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이용해서 369년에 왜 또는 백제가 군사 정벌을 단행하여 가야지역을 정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廣開土王陵碑文에는 한반도 남부 및 중부 지방에서 왜군이 활동한 흔적이 기록되어 있으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것에 비하여 그 활동이 과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성격의 존재들이었을까?

4세기 후반의 東아시아 정세에서 東晉과 前秦의 갈등도 있었으나, 한반도 관련 국제 정세의 기본은 高句麗와 百濟 兩大強國의 대결 구도였다. 그들은 4세기 후반에 帶方故地를 사이에 놓고 30여 년간 격렬한 전쟁을 치렀다. 그에 비하면 한반도 남부의 新羅와 加耶는 그에 부수적으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측면이 강하였다.

한편 加耶와 倭는 2~3세기 이래 4세기까지 상호간에 긴밀한 교역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관계는 4세기 후반에 양 지역의 정세 변동, 즉 金海의 加耶國을 중심으로 한 가야연맹의 재통합과 일본열도 畿内の 河內地域을 중심으로 한 신흥세력의 출현으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兩者의 교류관계는 전통적인 鐵素材와 威勢品 교역에 더하여, 가야의 軍需物資 수출 및 왜의 軍事力 동원 문제가 중요시되었다.

4세기 후반에 百濟는 고구려와의 대결을 치르는 과정에서 新羅를 견제하기 위하여 加耶를 지원하고, 加耶를 매개로 하여 倭와 연결되었다. 그런 중에 백제가 열세에 밀리자, 그들은 가야와 왜 사이의 전통적인 인적·물적 자원교역의 관행을 이용하여 倭軍을 끌어들었다. 그 결과 倭는 兩者間의 필요에 의하여 교류하던 加耶를 위해 高句麗와 百濟 사이의 전쟁에 동원되어 인명 손실의 큰 對價를 치르고 문화적 이득을 취한 것이다.

또한 그런 와중에 전쟁의 발생지였던 加耶에서는 많은 유망민이 발생하여 그 중 일부는 일본열도에 건너가 馬具類와 金屬加工術, 陶質土器 및 그 製作技法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를 韓日間의 단순한 교역, 또는 日本에서의 주체적 문물 수용, 심지어 任那經營의 결과라고 보기도 하나, 이는 사태의 본질에 다가 선 견해라고 하기 어렵다.

주제어: 고구려, 백제, 가야, 왜, 임나일본부설, 광개토왕릉비문

I. 머리말

4세기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큰 변혁의 시기였다. 고대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4세기는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첫 발자국이 내디딘 시기였다. 그런 가운데 4세기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주로 高句麗와 前燕·前秦·後燕 사이에 攻防과 小康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고구려는 5세기 초에 遼東을 영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4세기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명 체계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 핵심은 廣開土王陵碑文에 나오는 倭軍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韓半島系 이주민들이 일본열도에서 활동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문제의 중점을 한반도에 들어온 왜인의 문제에 둔다. 광개토왕릉비문의 기사는 4세기 말 5세기 초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그 이전부터 지속된 한일관계의 延長線上에서 나온 것이므로 4세기의 한일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세기 한일관계사에 대한 연구사의 핵심은 왜에 의한 이른바 ‘任那 지배’ 체제 성립 여부에 있다. 이러한 견해는 1949년에 간행된 末松保和의 《任那興亡史》¹⁾에서 주장된 것이나, 이는 戰前 일본 고대사학계의 전통적 이해²⁾를 바탕으로 한 야마토 왕권론을 정리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日本書紀》神功皇后條로 보아, 366년에 百濟가 倭에게 보물을 주고 出兵을 요청하자 369년에 왜는 대규모의 출병으로 加耶諸國을 쳐서 복속시키고 백제의 조공서약을 받아들였으므로, 그 결과 倭와 百濟의 관계가 성립되면서 동시에 任那가 성립되었다고 하였다.³⁾ 또한 廣開土王陵碑로 보아, 그 후 倭軍은 이를 地盤으로 삼아 391년부터 405년까지 광개토왕의 南征을 맞이하여 끊임없이 반격함으로써 그 곳에 부식된 왜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⁴⁾ 다만 倭의 임나 地盤에 대한 증거는 없어서, 스스로도 ‘임나에는 야마토 조정에서 常規的 지배자가 설치된 形跡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⁵⁾[밑줄: 필자]이라고 하여 추측으로 일관하였다.⁶⁾

1)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大八洲出版); 1956, 再版(吉川弘文館, 東京)

2) 那珂通世, 1888 <日本上古年代考> 《文》 1-8·9; 1958 《外交繹史》 제1권(那珂通世遺書, 岩波書店, 東京)

3) 末松保和, 1956 《앞 책》 46~63

4) 《위 책》 77~78

5) 《위 책》 257 “間接支配の百濟・新羅に、大和朝廷から常規的支配者が置かれた確かな形跡のないことは上に述べたが、それに対して直接支配の任那には、當然あるべきである。”

그러한 不實에도 불구하고 임나의 성립에 대한 末松의 정리는 그 후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福山敏男은 七支刀 銘文의 太和四年(369)說로서 이를 보완하고,⁷⁾ 三品彰英은 신공기 49년조의 근거로 되었다고 보이는 《百濟記》 등 ‘百濟三書’의 사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보완하였다.⁸⁾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일본사학계에서는 기존의 南韓經營論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연구동향은 이른바 ‘任那 지배’의 성격을 달리 추정해 보기도 하고 그 기간을 축소해 보기도 하였다. 井上秀雄은 任那日本府說의 출발점이 되었던 《百濟記》 관련 사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⁹⁾ 일본 학자의 연구로서는 최초로 왜왕권의 군사 정벌에 의한 임나 지배를 부인하였다.¹⁰⁾

그 후 山尾幸久는 왜왕권에 의한 임나 경영의 계기와 방식을 5세기 후반 백제 귀족 木滿致의 왜국 이주와 연관시켜 보았다.¹¹⁾ 請田正幸, 大山誠一, 鈴木英夫, 田中俊明 등은 任那日本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논고를 작성하면서 이를 4~5세기 단계와는 관련지을 수 없다고 보았다.¹²⁾

즉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걸쳐 4세기 왜왕권의 군사 정벌에 의한 임나 지배라는 관념은 학계에서 폐기된 것이다. 그런 경우 광개토왕릉비문 永樂 10年 庚子條의 전황으로 보아 4세기의 任那加羅와 倭는 제휴 또는 연합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았다.¹³⁾ 4

6) 그가 任那에 대한 常規的 지배자의 증거로 든 것은 木滿致 뿐이다. 임나 성립 당시 常備軍의 증거로는 廣開土王陵碑文의 倭軍밖에 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木滿致는 5세기 후반에 일본으로 건너간 百濟貴族으로 추정되며, 광개토왕릉비의 왜군은 후술하듯이 임나를 지배하는 상비군이라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7) 福山敏男, 1951 <石上神宮の七支刀> 《美術研究》 158

8) 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卷, 115~176

9) 井上秀雄, 1973 《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 東京) 42

10) 《위 책》 71~91

11) 山尾幸久, 1978 <任那に關する一試論-史料の檢討を中心に->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下卷 末松保和博士古稀記念會編(吉川弘文館, 東京); 1989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東京) 113~127

12) 請田正幸, 1974 <六世紀前期の日朝關係 -任那‘日本府’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 1974 《古代朝鮮と日本》 (朝鮮史研究會編, 龍溪書舍, 東京) 194

大山誠一, 1980 <所謂‘任那日本府’の成立について> 《古代文化》 32-9・11・12 (古代學協會, 京都)

鈴木英夫, 1987 <加耶・百濟と倭 -‘任那日本府’論->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67・75; 1996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 (青木書店, 東京) 183~184

田中俊明, 1992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東京) 86~90

13) 千寛宇, 1978. <復元加耶史・中> 《文學과 知性》 29 (문학과 지성사, 서울) 920; 1991 《加耶史研究》 (一潮閣, 서울) 27

세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근래의 학계 연구 동향은 주로 加耶와 倭 사이에 긴밀한 交流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¹⁴⁾

그러나 상당수의 일본사 概說書나 教科書에서는 그와 달리 任那日本府를 고대 일본의 강한 무력의 증거이면서 문화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하여, 4世紀 後半에 倭가 加耶地域에 세력을 뻗치거나 또는 거기에 진출하여 據點을 두고 강한 影響力 아래 두었다고 서술하였다.¹⁵⁾ 그리하여 1990년대에 들어 일본의 한 역사학자는 “지금의 학계에 있어서는 ‘임나일본부’론은 이미 과거의 것으로 되어, 새삼스럽게 그것을 부정할 것까지도 없는 것이나, 현실에서는(일본의 일반인들에게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듯하다.”¹⁶⁾[괄호 안: 필자]고 솔직하게 서술하였다. 그런 경향은 2000년대 들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4세기의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북방에서는 313년과 314년에 高句麗가 樂浪郡과 帶方郡을 병합하면서 크게 팽창하였고, 南韓에서는 이미 초기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있던 百濟의 선도적 발전에 이어 加耶와 新羅도 각각 弁韓과 辰韓 小國聯盟體의 盟主로서 해당 지역의 대외관계를 주도하게 되었다.¹⁷⁾ 게다가 1970년대 이후로 낙동강 유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 성과가 大舉 축적되어¹⁸⁾ 加耶史의 독자적 전개과정

鈴木英夫, 1996 《古代倭國と朝鮮諸國》(青木書店, 東京) 54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 《倭國と東アジア》(鈴木靖民編, 日本の時代史 2, 吉川弘文館) 22

14) 白石太一郎·上野祥史 編, 2004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第5回 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15) 綱野善彥著, 李根雨譯, 1999 《日本社會の 歷史(上)》(한림신서 일본학총서 42, 도서출판 소화) 64~103

吉田孝, 1997 《日本の誕生》(岩波新書, 東京) 74~78

西尾幹二 外 13名, 2001 《中學社會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東京)

大濱徹也 外 11名, 2001 《中學生の社會科 歷史 -日本の歩みと世界》(日本文教出版, 大阪)

村尾次郎 外 25名, 2002 《高校 最新日本史》(明成社, 東京)

山川出版社編, 2002 《高校 要說世界史A 改訂版》(東京)

16) 田中俊明, 1992 《알 책》 38

17) 邊太燮, 2002 《韓國史通論: 四訂版》(三英社, 서울) 74~83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3 《고등학교 국사》(교육인적자원부, 서울) 49~51

金泰植, 2003 <初期 古代國家論> 《강좌 한국고대사》 제2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서울) 1~90

18) 盧重國 외 5인, 1998 《가야문화도록》(경상북도, 대구)

한국고고학회 편, 2000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한국고고학회,釜山)

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가 정리되고 있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설에서 4세기 후반의 任那 성립을 논하는 것은 오래된 선입견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견해의 기본 사료를 이루는 것은 《日本書紀》神功皇后 49年條 기사와 廣開土王陵碑文의 倭軍 활동에 관한 기사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해당 사료들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그를 바탕으로 4세기 한일관계의 전개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日本書紀》 神功皇后 關聯記事의 問題點

1. 神功紀 49年條 記事의 研究史

神功紀 49年條의 記事는 所謂 ‘南韓經營論’의 주요 근거가 되는 사료이다. 倭가 加耶地域에 軍隊를 진출시켜 平定했다고 하는 기사는 神功紀 49年條가 유일하다. 그러므로 이 사료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神功紀 49年條의 記事는 《日本書紀》보다 10년 앞서 작성된 《古事記》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同 46年條부터 52年條에 걸쳐 이어지는 記事群인데, 그 47年條 기사에 《百濟記》가 인용되고 있어서,²⁰⁾ 神功紀 後半의 記事群이 전반적으로 이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하여 《日本書紀》에는 백제 관련 자료들이 많이 나온다. 이들은 이른바 ‘百濟三書’, 즉 《百濟記》, 《百濟新撰》, 《百濟本記》를 토대로 한 자료들인데, 그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주요 연구에서는, 그 기사들이 《日本書紀》 撰者が 天皇中心制 史觀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改作한 것이라는가,²¹⁾ 원래 백제에서 편찬된 百濟三書로부터 거의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2003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 서울)

朴天秀 외 3인, 2003 《加耶의 遺蹟과 遺物》 (학연문화사, 서울)

19)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 (一潮閣, 서울);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푸른역사, 서울); 2004 《가야사》 (CD, 미디어채널, 서울)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2001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 (혜안, 서울)

20)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攝政 47年條 細注 “千熊長彦者 分明不知其姓名。一云 武藏國人。今是額田部槻本首等之始祖也。百濟記云職麻那那加比跪者 蓋是歟也。”

21) 津田左右吉, 1924 《古事記及日本書紀の研究》 (岩波書店, 東京)

丁仲煥, 1972 <日本書紀에 인용된 百濟三書에 대하여> 《亞細亞學報》 10 (서울)

그대로 《日本書紀》에 전제된 것이라고²²⁾ 주장되었다. 또한 그에 이어 百濟三書의 인명이나 지명에 쓰인 字音假名字는 모두 《萬葉集》과 같은 推古朝遺文의 표기법과 높은 近似性을 보인다는가,²³⁾ 또는 백제에서 망명한 百濟人 또는 百濟王 後裔氏族이 7세기 말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 중에서 백제가 과거에 일본에게 협력한 흔적들을 조작 및 재편집하여 《日本書紀》 編纂 修史局에 제출한 것이라고²⁴⁾ 하는 점들도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근래에는 이를 모두 인정하여, ① 백제에서 편찬된 某種의 史書들이 있었고, ② 백제 유민들이 이들을 일부 再編하여 일본 조정에 제출하였으며, ③ 《日本書紀》 撰者が 이를 전반적으로 윤색함으로써 《日本書紀》의 백제 관련 기사들이 성립하였다는 종합적 관점, 즉 三段階編纂論이 통설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그러므로 百濟三書 기사의 사료적 가치를 지나치게 신빙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사의 성립 과정에 대한 논의를 유념하면서, 神功紀 49年條의 기사를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 주요 부분을 번역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A. <1> [神功皇后 攝政] 49년(249) 봄 3월에 아라타 와케[荒田別], 가가 와케[鹿我別]를 장군으로 삼아 久氐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건너가 卓淳國에 이르러 신라를 습격하려고 하였다.

<2> 그 때 누군가 말하였다.

“병사의 무리가 적어서 신라를 격파할 수 없소. 다시 한번 沙白과 蓋盧를 받아들여 올려보내 군사를 증원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木羅斤資와 沙沙奴跪<이 두 사람은 그姓을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다만 木羅斤資라는 자는 백제의 장군이다.>에게 명하여 정예군사를 거느리게 해서 沙白, 蓋盧와 함께 보냈다.

<3> 모두 卓淳에 모여 新羅를 쳐서 깨뜨렸다. 그로 인하여 比自妹, 南加羅, 喙國,

22) 三品彰英, 1962 <百濟記·百濟新撰·百濟本記>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吉川弘文館, 東京)

23) 木下禮仁, 1961 <“日本書紀”にみえる‘百濟史料’の史的價値について> 《朝鮮學報》 21·22 合(天理)

24) 坂本太郎, 1961 <繼體紀の史料批判> 《國學院雜誌》 62-9; 1964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 上》(東京大學出版會)

山尾幸久, 1989 <百濟三書と日本書紀> 《古代の日朝關係》(塙書房, 東京)

25) 高寬敏, 1993 <『日本書紀』所引「百濟本記」に關する研究> 《高句麗·渤海と古代日本》(雄山閣, 東京); 1994 <『日本書紀』所引「百濟記」と「百濟新撰」に關する研究> 《朝大學報》 1

李根雨, 1994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城南) 285~286

延敏洙, 1998 《고대한일관계사》(혜안, 서울) 46

安羅, 多羅, 卓淳, 加羅의 일곱 나라를 평정하였다.

<4> 거듭 군사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古奚津에 이르러 南蠻 枕彌多禮를 잡아 백제에게 주었다.

<5> 이에 그 왕 肖古와 왕자 貴須도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모였다. 이 때 比利, 辟中, 布彌支, 半古의 네 읍이 저절로 항복하였다.²⁶⁾

위의 기사에 대한 既存說의 이해방향은 매우 복잡하다. 일찍이 那珂通世는 일본에 廣開土王陵碑文이 전해진 지 얼마 후에 神功紀 49년(249) 己巳年의 사실을 干支 二運 내려서 紀年을 下向 조정 한 후, 기사의 내용 자체는 그대로 신뢰하는 자세를 보였다.²⁷⁾ 末松保和는 那珂의 연구가 任那史 研究의 과거 성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대로 수용하였으며,²⁸⁾ 거기다가 鮎貝房之進의 문헌고증에 의한 任那 관련 지명 비정 결과를²⁹⁾ 대폭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서 369년에 任那 성립의 유도적 역할을 한 것은 高句麗와 新羅를 동시에 상대해야 할 필요에 직면한 百濟였다고 하는 국제적 정황을 추가함으로써³⁰⁾ 그 기사의 신빙성을 되살려냈다.

반면에 津田左右吉 및 池內宏은 이 기사가 《百濟本記》 소재의 6세기 전반 任那關係 사실에 의거하여 《日本書紀》 編者が 대대적인 起源說話를 만들어낸 허구의 것이라고 하여,³¹⁾ 그 사실성을 전반적으로 부정하였다. 그러면서도 4~6세기 왜의 임나 지배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³²⁾ 三品彰英은 神功紀의 기사가 6세기 전반 欽明紀의 시점에 百濟 聖明王의 對加耶 戰略을 반영하여 찬술된 것이라는³³⁾ 이른바 ‘反映法’의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그도 일본의 가야 경영은 4세기 후반에 개시되었고

26)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攝政 49年 春3月條 “以荒田別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氏等 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 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奉上沙白蓋盧 請增軍士. 即命木羅斤資沙沙奴跪[是二人 不知何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 與沙白蓋盧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平定比自秣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七國. 仍移兵 西廻至古奚津 屠南蠻枕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自然降服.”

27) 那珂通世, 1888 <日本上古代考> 《文》 1-8·9; 1958 《外交譯史》 제1권 (那珂通世遺書, 岩波書店, 東京) 37~39

28)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 1956, 再版 (吉川弘文館, 東京) 17

29) 鮎貝房之進, 1937 <日本書紀朝鮮關係地名攷> 《雜攷》 7 上·下卷

30) 末松保和, 1956 《알 책》 46~63

31) 津田左右吉, 1924 《古事記及日本書紀の研究》 (岩波書店, 東京) 644

池內宏, 1947 《日本上代史の一研究》 (近藤書店); 1970, 再版 (中央公論美術出版) 53

32) 津田左右吉, 1913 <任那疆域考> 《朝鮮歷史地理研究》 1; 1964 《津田左右吉全集》 11

池內宏 《위 책》(1970年版) 54

33) 三品彰英, 1962 《알 책》 162~176; 2002, 第二版 (天山舍) 160~177

이때 加耶 7國이 그 범위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하여³⁴⁾ 임나 경영을 사실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津田, 池內, 三品の 이중적 견해는 학자적 엄격성과 시대 분위기의 영향이라는 현실적 괴리 속에서 나온 자기모순적 산물이었다.

1970년대 이후로는 일본 내에서도 《日本書紀》의 任那 관련 자료들의 사료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보는 연구가 나타났다. 井上秀雄은 《日本書紀》의 原典 연구를 통하여 6세기 이전의 문헌 사료는 불확실하고,³⁵⁾ 神功紀의 《百濟記》 관련 기사는 欽明·繼體朝의 投影이며,³⁶⁾ 《百濟記》 자체는 백제가 6세기 중엽에 大和朝廷에게 영합하여 그 군사적 원조를 얻으려고 일본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4세기의 일을 알 수는 없다고 보았다.³⁷⁾ 請田正幸은 더 나아가, 이제 일본 내에서도 武烈紀 이전의 任那 관련 기사들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선언하였다.³⁸⁾

神功紀의 任那 기사를 부인하는 이러한 태도는 그 후의 학자들에게 수용되어, 山尾幸久는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木茲滿致 기사를 존중하여 A-2 부분을 기존의 통설과 달리 3周甲 하향 조정하였으며,³⁹⁾ A-3의 ‘七國’ 평정 기사는 ‘七枝刀’와 ‘七子鏡’ 현상의 緣起로서 神功紀 編者が 첨가한 作文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⁴⁰⁾ 大山誠一과 鈴木靖民, 鈴木英夫도 神功紀의 사료적 가치를 부정하고 任那의 성립 과정을 532년 또는 530년의 가야의 요청에 의한 군대 파견으로 늦추어 보았다.⁴¹⁾ 田中俊明은 A-2·4·5의 기사는 429년의 내용이되 그 중에 南蠻 枕彌多禮의 공취나 比利等 4국의 항복은 木羅斤資의 활약을 보다 한층 빛나는 것으로 하기 위한 造作이며,⁴²⁾ 369년의 내용인 A-3의 加羅 7국 평정 기사는 《日本書紀》 編者の 조작으로서 역사적 사실과는 무관하고 卓淳國 기사만 加耶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⁴³⁾

34) 《위 책》 176

35) 井上秀雄, 1973 《任那日本府と倭》(東出版) 28~29

36) 《위 책》 42

37) 《위 책》 111~112

38) 請田正幸, 1974 <六世紀前期の日朝關係—任那‘日本府’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 40

39)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塙書房, 東京) 113~127

40) 《위 책》 124

41) 大山誠一, 1980 <所謂‘任那日本府’の成立について> 上·中·下 《古代文化》 32-9·11·12 (古代學協會, 京都); 1999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吉川弘文館, 東京)

鈴木靖民, 1984 <東アジア諸民族の國家形成と大和王權> 《岩波講座 日本歷史》 1 (原始·古代1, 岩波書店, 東京)

鈴木英夫, 1987 <加耶·百濟と倭—‘任那日本府’論->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1996 《古代倭國と朝鮮諸國》(青木書店, 東京)

42) 田中俊明, 1992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吉川弘文館, 東京) 86~90

한편 韓國의 연구자들은 초기부터 최근까지 이를 왜의 가야 정벌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우선 李丙燾는 神功紀 49년조의 앞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A-4·5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성을 인정하여, 백제 近肖古王이 369년에 南征하여 馬韓 잔여세력을 모두 복속시켰다고 주장하였다.⁴⁴⁾ 여기서 더 나아가 千寬宇는 위의 기사에서 比自休 등 7국을 평정한 주체를 倭에서 百濟로 바꾸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⁴⁵⁾ 主體交替論의 조건 아래 A-1·2·3 부분의 사실성도 인정하였다.⁴⁶⁾ 金鉉球는 사료를 좀더 신중하게 분석하여 千寬宇와 大同小異한 결론을 내렸다.⁴⁷⁾ 이처럼 神功紀를 百濟中心의 修正論으로 보는 견해는 그 후로도 학계의 일각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다.⁴⁸⁾

그러나 한국에서도 加耶史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은 神功紀 49年條의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李永植은 여러 가지의 내용적 모순으로 인하여 A-1·2 부분은 倭의 각 씨족의 家記類의 단계에서 창작 또는 과장된 것으로서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⁴⁹⁾ A-3·4 부분은 繼體紀의 후대 사실이 연대적으로 소급된 것이고,⁵⁰⁾ A-5 부분만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여 백제 近肖古王代에 충남 및 전북 지역에 대한 일시적인 군사 활동이 있었다고 보았다.⁵¹⁾ 延敏洙는 神功紀 49년조의 기사들은 대체로 6세기 전반 백제의 의도를 나타내는 繼體紀 기사들이 중복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⁵²⁾ 또한 神功紀 52년조의 七枝刀와 七子鏡도 실은 6세기 초 百濟 武寧王代에 倭國에 전해진 사실에 기초하여 백제의 일본에 대한 服屬起源說話 속에 편입

43) 《위 책》 90

44) 李丙燾, 1959 《韓國史 古代篇》(震檀學會) 359~361; 1970 <近肖古王拓境考> 《百濟研究》 1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976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서울) 511~514

45) 千寬宇, 1991 《加耶史研究》(一潮閣, 서울) 24, 160~162

46) 千寬宇, 1977·1978 <復元加耶史> 上·中·下 《文學과 知性》 28·29·31; 1991 《加耶史研究》(一潮閣, 서울)

47) 金鉉球, 1985 《大和政權의 對外關係研究》(吉川弘文館) 184~201; 1991 <神功紀 加羅七國 平定記事에 관한 一考察> 《史叢》 39; 1993 《任那日本府研究 -韓半島南部經營論批判-》(一潮閣, 서울) 21~45

48) 朱甫暎, 1995 <序說 -加耶史의 새로운 定立을 위하여-> 《加耶史研究 -대가야의 政治와 文化-》(慶尙北道, 大邱) 43~46

盧重國, 1995 <大加耶의 政治·社會構造> 《加耶史研究 -대가야의 政治와 文化-》(慶尙北道, 大邱) 207~214

49) 李永植, 1995 <百濟의 加耶進出過程> 《韓國古代史論叢》 7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서울) 184

50) <위 논문> 189~190

51) <위 논문> 196~200

52) 延敏洙, 1998 《고대한일관계사》(혜안, 서울) 47~49

되었다고 보았다.⁵³⁾

일찍이 筆者는 神功紀의 사료적 가치를 의심하는 기초 아래, A-3의 7국은 金海의 교역망이 우월성을 가질 수 있는 범위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김해를 중심으로 한 교역체계로서 백제와 연결되었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 실체는 欽明紀 2년 4월조에서 百濟 聖王이 “옛날에 우리 先祖이신 速古王·貴首王 때에 安羅·加羅·卓淳早岐들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서로 통하여 親好를 두터이 맺었다.”⁵⁴⁾고 말한 것이 상황을 더욱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았고,⁵⁵⁾ 그 國名은 3~4세기 당시의 국명이 아니라 5세기 이후 後期 加耶時代의 국명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⁵⁶⁾ A-4 부분은 전남 枕彌多禮(康津郡 兵營面 또는 海南郡 縣山面) 지역에 백제가 제2의 對倭交易 仲介基地를 설정한 데서 나온 말로 보았고, 여기에 倭나 百濟의 군사 행동은 없었다고 보았다.⁵⁷⁾ 다만 A-5의 4문은 《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 26·27년조의 馬韓 멸망 기사와 同 36년조의 古沙夫里城 축성 기사와 같이 전북 金堤-古阜線까지 실제로 백제의 영역에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볼 때, 일본의 초기 연구자들은 기사의 신빙성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4세기 후반 倭의 任那征伐을 사실상 긍정하였으나, 1970년대를 전후한 井上秀雄의 태도 변화를 계기로 하여 기사 및 사실 모두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반면에 한국의 초기 연구자는 근초고왕의 馬韓 정벌만 인정하고 왜의 가야 정벌을 부정하였으나, 1980년대를 전후하여 百濟主體의 觀點이 나온 이후 이를 백제의 가야 정벌로 수정하여 받아들이기도 하고 혹은 그것마저 부정하는 二元的 이해방향으로 나뉘었다.

53) 《위 책》 51

54)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2年 夏四月條 “聖明王曰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之世 安羅加羅卓淳早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55) 金泰植, 1994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韓國古代史論叢》 6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83~84; 1997 <百濟의 加耶地域 關係史: 交渉과 征服> 《百濟의 中央과 地方》 (百濟研究論叢 第5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49~51; 2002 《미완의 문명 7 백년 가야사 1권》 (푸른역사, 서울) 137~143

56) 金泰植, 1994 <위 논문> 85

57) 金泰植, 1997 <앞 논문> 50~51

2. 神功紀 49年條 記事의 意味

위와 같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神功紀 49년조 기사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

우선 A-5의 近肖古王 經略에 의한 4읍 항복 기사에 대해서는 1970년대 이후 일본인 연구자들은 모두 부정하고 한국인 연구자들은 延敏洙만을 제외하고 모두 긍정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사료 자체에 대한 태도의 문제일 뿐이고 이 기사를 둘러싼 견해 대립은 그리 치열하지 않다. 특히 比利, 辟中, 布彌支, 半古 4읍의 지명 자료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馬韓 54국 중에 卑離國, 辟卑離國, 不彌國, 支半國, 狗素國 등의 지명과 일치도가 높기 때문에 중요한 사료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神功紀에 인용된 《百濟記》의 일부 자료들이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다면 神功紀 49년조의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까? 우선 A-1 부분을 인정하는 학자는 1970년대 이후로는 韓日間에 아무도 없다. 이는 그 기사가 日本 古代氏族의 전승 요소를 《日本書紀》 撰者が 변형하여 작문한 것일 뿐이고 《百濟記》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A-2·3·4의 沙白, 蓋盧, 木羅斤資, 沙沙奴跪 등의 인명 표기와 比自怵, 南加羅, 喙國, 安羅, 多羅, 卓淳, 加羅, 및 古奚津, 南蠻 枕彌多禮 등의 지명 표기는 일본측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들 기사가 《百濟記》의 原典에서 나온 것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도 그 기사를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백제 중심적인 과장과 일본 위주의 變改, 후대적인 용어 표기 등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진상 파악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神功紀 49년조의 기사를 근거 삼아 369년 당시의 사실을 논할 수는 없다.

다만 神功紀를 紀年修正하고 거기에 《三國史記》 百濟本紀 기사를 더하여 본다면, 百濟가 加耶로 이어지는 교역망을 성립시키고, 平壤城을 공격하여 고구려를 일차로 패배시킨 직후에, 倭國에 사신을 보내 七支刀 등을 준 것이 되는데, 이것은 얼마나 사실일까? 19세기 말에 七支刀가 극적으로 발견되어 보고 된⁵⁸⁾ 이후, 神功紀의 三韓征討說話 및 七國平定記事는 369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생긴 듯하다. 그러나 일본 天理市 石上神宮에 현존하는 七支刀가 어느 시기의 것인지 분명치 않다.

58) 星野恒, 1892 <七枝刀考> 《史學雜誌》 37 (東京)
菅政友, 1893 <任那考>; 1907 《菅政友全集》

이를 4세기 후반의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기는 하나,⁵⁹⁾ 실제로는 5세기 후반 내지 6세기 전반의 것일 가능성을 논하는 견해들도 유력하다.⁶⁰⁾

특히 한국과 일본에 현존하는 金 또는 銀象嵌 銘文이 있는 刀劍들, 즉 한국 昌寧 校洞 11號墳出土 環頭大刀,⁶¹⁾ 일본 東京博物館 所藏 環頭大刀,⁶²⁾ 埼玉縣 埼玉 稻荷山 高분 출토 金象嵌 辛亥銘鐵劍,⁶³⁾ 熊本縣 江田 船山 高분 출토 銀象嵌 大刀⁶⁴⁾ 등은 모두 5세기 후반 내지 6세기 전반의 것으로서, 그 유행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보이고 있다. 고고학적으로 보아 七支刀는 鐵製三叉鉞, 鐵製蛇行劍, 有棘鐵器(=有刺利器) 등과 형태적으로 유사하고 그 유물들은 6세기 전반에 성행하였다는 것을 밝힌 논고⁶⁵⁾도 있다.

-
- 59) 福山敏男, 1951 <石上神宮の七支刀> 《美術研究》 158; 1951 <石上神宮の七支刀 補考> 《美術研究》 162; 1952 <石上神宮の七支刀 再補> 《美術研究》 165; 1969 《日本建築史研究》 再收錄; 1971 《論集日本文化の起源》 第二卷(平凡社, 東京) 再收錄
 榎本杜人, 1952 <石上神宮の七支刀と其銘文> 《朝鮮學報》 3(朝鮮學會, 天理)
 西田長男, 1956 <石上神宮の七支刀の銘文> 《日本古典の史的研究》(理想社)
 三品彰英, 1962 <石上神宮の七支刀>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吉川弘文館, 東京)
 藤間生大, 1968 <七支刀> 《倭の五王》(岩波新書, 東京)
 栗原朋信, 1970 <七支刀の銘文よりみた日本と百濟 東晋の關係> 《歴史教育》 18-4.
 上田正昭, 1971 <石上神宮と七支刀> 《日本の中の朝鮮文化》 9
 佐伯有清, 1977 《七支刀と廣開土王碑》(吉川弘文館, 東京)
 神保公子, 1981 <七支刀銘文の解釋をめぐって>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3
 鈴木靖民, 1983 <石上神宮七支刀銘についての一試論> 《坂本太郎頌壽記念日本史學論集》 上
 李道學, 1990 <百濟 七支刀 銘文의 再解釋> 《韓國學報》 60(서울)
 木村誠, 2000 <百濟史料としての七支刀銘文> 《人文學報》 第306號(東京都立大學 人文學部)
- 60) 李丙燾, 1974 <百濟七支刀考> 《震檀學報》 38(진단학회, 서울); 1976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서울) 再收錄
 金錫亨, 1963 <삼한 삼국의 일본열도 내 분국에 대하여> 《역사과학》 1963-1; 1966 《초기조일관계연구》(평양)
 宮崎市定, 1992 《謎の七支刀 -五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中央公論社)
 延敏洙, 1994 <七支刀銘文の再檢討 -年號の問題と製作年代を中心に-> 《年報 朝鮮學》 第4號
- 61) 韓永熙·李相洙, 1990 <昌寧 校洞 11號墳 出土 有銘環頭大刀> 《考古學誌》 2(韓國考古美術研究所, 서울)
 62) 早乙女雅博·東野治之, 1990 <朝鮮半島出土の有銘環頭大刀> 《MUSEUM》 467
 63) 埼玉縣教育委員會, 1980 《埼玉稻荷山古墳》
 64) 東京國立博物館編, 1993 《江田船山古墳出土 國寶 銀象嵌銘大刀》(吉川弘文館, 東京)

또한 《日本書紀》에 백제사신이 七支刀와 함께 가져갔다고 나오는 七子鏡은 원형 거울의 언저리에 작은 원이 일곱 개 새겨진 청동거울이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거울은 1971년에 武寧王陵에서 출토된 바 있다. 그 모습을 보면 청동제 원형 거울의 바깥쪽 테두리와 안쪽 테두리 사이에 원형 꼭지가 도드라진 원형 무늬 7개를 두고 그 사이에 가는 선으로 새긴 四神과 三瑞獸를 하나씩 배치하였다.⁶⁵⁾ 武寧王은 523년에 崩御하였고, 3年喪을 거쳐 525년에 매장되었으니, 이 거울은 6세기 전반의 것이다. 백제에서 왜국으로 七子鏡을 보냈다면 武寧王陵의 거울과 유사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七子鏡이란 백제 무령왕릉 출토경과 일본 출토의 七獸帶鏡을 말한다는 견해⁶⁷⁾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七支刀는 525년 무렵 또는 그보다 앞서는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七支刀의 존재가 神功紀의 사료적 가치를 보증해 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神功紀 49年條의 기사는 369년 또는 429년에 백제나 왜가 군사 정벌을 단행하여 가야지역을 정복한 것을 지적하는 사료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4세기 후반 또는 5세기 전반의 어느 시기, 또는 그 동안의 여러 시기에 걸쳐 백제가 우수한 선진문물을 가지고 加耶地域의 親新羅的인 小國들 및 全南海岸地帶의 일부 小國과 통교하게 된 것을 과장 왜곡한 것이다. 백제와 倭와의 관련은 좀더 후대의 것을 조금 해서 적용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神功紀를 통해서 4세기 후반의 가야 관련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창원의 卓淳國(=彌烏邪馬國), 즉 任那의 중개활동으로 인하여 百濟와 倭가 연결되었다는 것뿐이다.

Ⅲ. 廣開土王陵碑文의 倭記事와 그 性格

1. 辛卯年 記事의 檢討

古代 日本의 발전 원동력은 무엇인가? 4세기 말 5세기 초에 日本列島の 倭는 東아시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반드시 거론되는 것이 멀리 중국 遼寧省 集安縣에 있는 廣開土王陵碑文에 나타난 倭 關聯 記事이다.

65) 村上英之助, 1978 <考古學から見た七支刀の製作年代> 《考古學研究》 25-3, 95~102

66) 文化財管理局, 1973 《武寧王陵發掘調査報告書》 35(圖版 62)

67) 樋口隆康, 1972 <武寧王陵出土鏡と七子鏡> 《史林》 55-4, 13~16

거기에는 분명히 倭, 倭人, 倭賊, 倭寇라고 표현된 존재들이 있고, 그들은 韓半島 안에서 高句麗와 전쟁을 치루는 상대로 명시되어 있다. 물론 廣開土王陵碑文에서 高句麗와의 전쟁 상대로 거론된 존재들은 그 외에도 稗麗, 百殘, 息慎, 東夫餘 등이 있다.

다른 나라들은 대개 기사가 한 번만 나오고 위치상으로 볼 때 모두 高句麗와 인접하고 있는데, 유독 倭만 멀리 떨어진 나라이고 여러 차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자는 이를 倭王權과 高句麗 사이의 17年 戰爭이라고 대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⁶⁸⁾ 물론 거기서도 이 전쟁은 百濟가 주도하고 倭가 따른 것이라고 추정하였다.⁶⁹⁾ 그렇다면 그 표현은 달리 되어야 할 것이다.

廣開土王陵碑에 倭 關聯 記事들이 나오는 條項은 이른바 ‘辛卯年 記事’, 永樂 9년 己亥(399)條, 10년 庚子(400)條, 14년 甲辰(404)條 등이다. 그 해당 조항의 ‘倭’字에 대한 歷代 判讀文 對照表는 다음의 <表 1>과 같다.⁷⁰⁾

68)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 《倭國と東アジア》(鈴木靖民編, 日本の時代史 2, 吉川弘文館) 17

69) <위 논문> 22

70) <표 1>을 작성하는 데 참고로 한 논저들은 다음과 같다.

- 橫井忠直, 1889 <高句麗古碑考> 《會餘錄》 제5집 (亞細亞協會)
 三宅米吉, 1898a <高麗古碑考> 《考古學雜誌》 第2編 第1~3號 (日本考古學會)
 三宅米吉, 1898b <高麗古碑考追加> 《考古學雜誌》 第2編 第5號 (日本考古學會)
 榮禧, 1903 <高句麗永樂大王墓碑文> 《古高句麗永樂大王墓碑文攷》
 羅振玉, 1909 <高麗好大王碑釋文> 《神州國光集》 第9集
 楊守敬, 1909 《高麗好大王碑》>
 今西龍, 1915 <廣開土境好大王陵碑に就て> 《訂正増補 大日本時代史》 古代下卷 附錄;
 1970 《朝鮮古史の研究》(國書刊行會)
 前間恭作, 1919 <輯安高句麗廣開土王陵碑> 《朝鮮金石總覽》 上
 金毓黻, 1934 <晉高麗好大王碑> 《奉天通志》
 水谷悌二郎, 1959 <好大王碑考> 《書品》 100號; 1977 《好大王碑考》(開明書院, 東京)
 末松保和, 1959 <高句麗好大王碑文> 《歷史教育》 74
 朴時亨, 1966 《광개토왕릉비》(사회과학원출판사, 평양)
 王健群, 1984 《好大王碑研究》(吉林出版社, 吉林)
 李亨求·朴魯姬, 1986 《廣開土王陵碑 新研究》(同和出版公社, 서울)
 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東京大學出版會, 東京)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廣開土王碑’研究序說-》(岩波書店, 東京)
 盧泰敦, 1992 <광개토왕릉비> 《譯註韓國古代金石文》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서울)
 白崎昭一郎, 1993 《廣開土王碑文の研究》(吉川弘文館, 東京)
 耿鐵華, 1994 《好大王碑新考》(吉林人民出版社, 吉林)
 林基中, 199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東國大學校出版部, 서울)
 손영중, 2001 <비문의 해석> 《광개토왕릉비문 연구》(사회과학원 편, 도서출판 중심,

<表 1> 廣開土王陵碑文 所在 '倭'字 釋文 對照表

條項	研究者	位置																							
		橫井忠直	三宅米吉18	三宅米吉18	榮禧	羅振玉	楊守敬	今西龍	前間恭作	金毓勳	水谷悌二郎	末松保和	朴時亨	王健群	李亨求	武田幸男	武田幸男	盧泰敦	白崎昭一郎	耿鐵華	林基中	손영중	任世權	金泰植	
		1889	98a	98b	1903	1909	1909	1915	1919	1934	1959	1959	1966	1984	1986	1988	1989	1992	1993	1994	1995	2001	2002	2005	
辛卯年	I-9-6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九年己亥	II-6-40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II-7-15~16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倭人	
十年庚子	II-8-31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II-8-39~40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倭賊	
	II-9-9	來	□	□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來	倭	來	侵	侵	□	倭	倭	倭	倭	倭	乘	
	II-9-36~37	倭滿	倭滿	倭滿	倭滿	倭滿	倭滿	倭滿	倭滿	倭滿	倭滿	倭滿	倭滿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II-9-38	□	□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II-10-12	□	□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II-10-22	尖	尖	尖	大	□	來	□	來	來	來	來	來	倭	來	□	□	□	倭	倭	倭	倭	倭	徙	
	II-10-34	□	倭	□	煙	□	□	□	煙	□	□	□	□	□	□	□	□	□	□	倭	倭	倭	倭	倭	倭
	II-10-35	□	□	□	塵	□	□	□	塵	□	□	□	□	□	□	□	□	□	□	倭	倭	倭	倭	倭	倭
	II-10-38	倭	□	□	燒	□	□	□	燒	□	□	□	□	□	□	□	□	□	□	倭	倭	倭	倭	倭	倭
III-1-5				百	□	□	□	百	□	□	□	□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III-1-40				王	□	□	□	太	□	□	□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十四年甲辰	III-3-13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倭	
	III-3-37	□	□	□	倭	□	□	倭	□	□	□	往	□	□	□	□	□	□	□	□	□	往	□	□	
	III-4-13~14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倭寇	
十七年丁未	III-4-34~35	□	□	□	倭寇	□	□	□	倭寇	□	□	□	□	□	□	□	□	□	□	□	□	□	□	□	
		□	□	□	倭寇	□	□	□	倭寇	□	□	□	□	□	□	□	□	□	□	□	□	□	□	□	
計	總數	9	9	9	12	9	9	9	9	12	9	9	9	11	7	10	9	8	12	12	10	11	8	8	

서울)

任世權·李宇泰, 2002 《韓國金石文集成(1)》(韓國國學振興院, 安東)

金泰植, 본 논문 말미의 【史料集成】

그에 따르면 判讀者들은 최소 7字, 최대 12字의 ‘倭’字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신묘년 기사는 6년 丙申條의 백제 정벌에 대한 이유 설명을 위해 나오는 것이고, 9년 己亥條는 10년 庚子條 신라 영토 내의 倭軍 정벌에 대한 이유 설명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본격적인 전투 기사는 아니다. 10년 庚子條는 주로 新羅와 加耶의 接境地帶에서 벌어진 倭軍 정벌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14년 甲辰條는 高句麗와 百濟의 接境地帶인 帶方界에 들어온 倭軍을 물리치는 경과를 기록하였다.⁷¹⁾

그러므로 이 네 개의 기사들은 일단 倭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의 초점이 되어온 것은 이른바 ‘辛卯年 기사’이다. ‘辛卯年 기사’는 永樂 5년 稗麗 정벌과 6년 百殘 정벌 사이에 들어 있는 문장으로서 여러 가지 釋文과 해석이 있다. 광개토태왕릉비문에는 1970년대 이래 일본군 參謀本部의 石灰塗付를 통한 비문 변조 논의가 있다가,⁷²⁾ 중국에서의 현지 조사 이후에는 中國人 拓工의 행위라 하여⁷³⁾ 대체로 수그러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신묘년 기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몇 글자에 대하여 일본군 參謀本部의 密偵인 酒匂景信에 의한 훼손 또는 고의적 削除가 상정되고 있다.⁷⁴⁾

다만 요즘 學界에서 대체로 인정되는 것은 辛卯年 기사가 廣開土王의 ‘王躬率’ 즉 親征 이유를 설명하는 前置文이거나,⁷⁵⁾ 혹은 永樂 6년 百濟 討伐의 前置文일 뿐만 아니라 이후 모든 南征 기사의 導論이 되는 大前置文이며,⁷⁶⁾ 倭가 강하다는 것은 사실

71) 永樂 17년 丁未條에는 倭라는 글자가 없으나 이 기사를 倭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히 있다. 그런데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기록은 百濟나 燕나라에 대해 여러 차례의 전투가 있었음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비해 廣開土王陵碑文에 後燕에 대한 戰鬪成果를 기록한 대목은 다른 곳에는 없다. 그러므로 永樂 17년 丁未條는 後燕에 대한 전투를 묘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게다가 이 전투에는 다른 전투와 달리 鎧鉀과 軍資器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배풀어져 있다. 만일 이 전투가 百濟나 倭軍에 대한 것이라면 차라리 몇 만 명을 무찔렀다고 나올지언정 갑옷이나 軍備에 대한 描寫가 이처럼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전투가 後燕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高句麗보다 앞선 그들의 무기를 大量 獲得한 것에 대한 感懷를 기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7년 丁未條는 倭와의 關聯性이 없다고 생각한다.

72) 李進熙, 1972 《廣開土王碑の研究》(吉川弘文館, 東京)

73) 王健群, 1984 《앞 책》

74) 徐榮洙, 1996 <‘辛卯年記事’의 변상과 원상>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高句麗研究會 編, 學研文化社, 서울) 409~415

75) 濱田耕策, 1974 <高句麗廣開土王碑文の研究 -碑文の構造と史臣の筆法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 (龍溪書舍, 東京)

76) 武田幸男, 1978 <廣開土王碑辛卯年條の再吟味> 《古代史論叢》(井上光貞博士還曆記念會 編)

과 다를 수 있으나 高句麗는 왜를 트릭스타로 宣傳하였다는⁷⁷⁾ 등의 견해이다. 廣開土 王陵碑文의 倭는 倭寇일 뿐이나 과장되게 표현되었다고 보는 견해도⁷⁸⁾ 그와 마찬가지로 지이다. 이 견해들은 비문을 통해 南韓經營論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했다고 보이나, 高句麗가 주목할 만한 倭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기사가 親征의 前置文이라면, 高句麗가 - 自身에게 敵對行爲를 한 倭가 아니라 - 百濟를 공격한 이유라고 보기에 합당치 못하다. 이 기사가 모든 南征의 大前置文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바로 뒤에 百濟를 공격한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변명할 수는 있어도 이 기사가 어째서 이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왜냐하면 永樂 6년조 뒤에 이어 나오는 8년조는 息愼에 대한 것으로서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문의 구조상으로는 신묘년 기사를 ‘王躬率’ 형태를 띠는 永樂 6년 百濟討伐의 前置文으로만 보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장의 뜻은 ‘百殘과 新羅가 옛날부터 屬民이었으나 辛卯年에 倭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여 백제가 여기서 이탈하고 新羅만이 그대로 臣民이 되었다.’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辛卯年 기사의 原文을 다시 살펴보자.

B.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破百殘□□新羅以爲臣民.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百殘□□新羅’가 倭의 臣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혹은 사실 여부를 떠나 고구려가 그렇게 인정했는가의 문제도 포함된다. 그러나 碑文 자체의 用例만 분석해 볼 때,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왜가 백제를 臣民으로 삼았다면 永樂 6년조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할 때 그 倭의 면모가 보여야 하나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百濟가 항복하는 장면에서 그 타협을 倭의 總督이 아닌 百濟王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고구려가 백제를 倭의 臣民이라고 인정할 여지가 없다.

둘째로 永樂 9년조로 보아 倭는 百殘과 和通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永樂 6년에 백제왕이 고구려의 奴客이 되기로 맹서한 이후의 상황이기도 하나, 만일 그 전에 왜가 백제를 臣民으로 삼았거나 또는 고구려가 그렇게 인정하였다면 碑文의 이 대목에서도 그 威勢의 차이가 드러나야 한다. 그러나 ‘和通’이란 對等한 相對 사이의 協約

77) 李成市, 1994 <表象としての廣開土王碑文> 《思想》 842; 이성시 지음, 박경희 옮김, 2001 《만들어진 고대 -근대 국민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 (도서출판 삼인, 서울)

78) 王健群, 1984a 《好太王碑研究》 (吉林出版社, 吉林); 1984b 《好太王碑の研究》 (雄渾社, 東京); 1985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서울)

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셋째로 碑文에 나오는 ‘民’의 개념에는 오로지 高句麗의 民만 있을 뿐이고, 다른 나라의 백성을 ‘民’으로 표기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百濟王조차도 ‘民’보다 못한 ‘奴客’일 뿐인데 倭國의 民을 ‘奴’가 아닌 ‘臣民’으로 표기하였을 리가 없다. ‘民’의 용례는 비문에 모두 11회 나오는데,⁷⁹⁾ 그 중에 ‘臣民’ 외에 高句麗의 民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는 것은 영락 9년조의 ‘以奴客爲民’ 뿐이나, 그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또한 사실의 문제로서 접근해 볼 때, 백제와 신라가 옛날부터 고구려의 屬民으로서 늘 조공해왔다는 것은 허구이다. 4세기 후반에 신라는 고구려와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백제는 371년에 고구려 平壤城을 공격하여 故國原王을 전사시킨⁸⁰⁾ 強國이다. 그러므로 백제는 고구려의 屬民도 아니고 朝貢關係를 확인할 수도 없다.

永樂 6년 고구려의 百濟 토벌 명분은 故國原王의 피살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고구려는 광개토왕의 勳績을 기리는 비문에서 백제에 의한 故國原王의 피살을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듯하다. 그래서 또 하나의 허구로서 倭의 행위를 과장한 것이라고 보인다. 고구려가 백제의 同盟軍으로 보이는 倭를 높인 것은 원수인 百濟를 百殘으로 부르는 것과 같이 그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다.

그러므로 永樂 6년조의 前置文인 辛卯年 기사는 온통 虛構로 만들어진 문장이며, 실상은 百濟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2. 永樂九年己亥條의 檢討

이제 광개토왕릉비문에서 辛卯年 기사를 제외한 倭 관련 기사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碑文에서 永樂 9년(399) 己亥條의 譯文을 제시한다.

- C. <1> 9년 己亥에 百殘이 서약을 어기고 倭와 화통하므로, 王은 平穰으로 巡狩해 내려갔다. <2> 新羅가 使臣을 보내 王에게 말하기를, ‘倭인이 그 國境에 가득 차 城池를 부수었으니, 奴客은 백성 된 자로서 王에게 歸依하여 分부를 청한다.’고 하였다.

79)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序文 國富民殷(1), 辛卯年 百殘新羅 舊是屬民(2), 新羅 以爲臣民(3), 九年己亥 以奴客爲民(4), 卅年庚戌 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5), 守墓人烟戶 賣勾余民(6), 五敦城民(7), 平穰城民(8), 舊民(9~11).

80) 《三國史記》 卷24 近肖古王 26年(371)條 “高句麗舉兵來 王聞之 伏兵於溟河上 俟其至急擊之高句麗兵敗北. 冬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

<3> 太王은 恩慈하여 그 忠誠을 불쌍히 여겨, 특별히 使臣을 돌려보내 密計를 告하도록 하였다.⁸¹⁾

사료 C-1의 9년 기해조 첫 머리 부분의 번역에 대해서는 異論이 없다. 百殘이 서약을 어겼다는 것은, 永樂 6년(396)에 백제왕이 패전 후에 ‘지금부터 이후로는 영원히 奴客이 되겠다’고 서약한 것을⁸²⁾ 어겼다는 뜻이다. 倭와 和通했다는 것은, 백제가 阿莘王 6년(397)에 왜국과 우호를 맺고 太子 腆支를 볼모로 보낸⁸³⁾ 사건을 가리킨다.

C-2에 보이듯이, 신라는 사신을 보내 請命하였다. 여기서 ‘請命’은 ‘御命을 내려 官吏의 職任을 맡겨 달라’는 뜻이다. 즉 고구려와 合作을 하자는 뜻이다. 그런데 합작 요청의 근거라고도 보이는 ‘以奴客爲民’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다. 즉 奴客인 신라왕을 왜의 民으로 삼았다는 新羅王=倭民說,⁸⁴⁾ 또는 奴客인 백제왕을 왜의 民으로 삼았다는 百濟王=倭民說,⁸⁵⁾ 또는 奴客인 신라왕은 고구려의 民이라는 新羅王=高句麗民說⁸⁶⁾의 세 가지이다.

81) 《廣開土王陵碑文》 永樂九年 己亥條 “百殘違誓 与倭和通. 王巡下平穰. 而新羅遣使 白王云 人滿其國境 潰破城池 以奴客爲民 歸王請命. 太王恩慈 矜其忠誠 特遣使還 告以密計.”

82) 《廣開土王陵碑文》 永樂六年(396) 丙申條 “殘主(中略)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

83)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6년(397) 5월조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腆支爲質.”

84) 菅政友, 1891 <高麗好太王碑銘考> 《史學雜誌》 24, 43

那珂通世, 1893 <高句麗古碑考> 《史學雜誌》 49, 32

三宅米吉, 1898 <高麗古碑考> 《考古學雜誌》 2-3, 2

王健群, 1984b 《好太王碑の研究》 (雄渾社, 京都) 196

鈴木靖民, 1988 <好太王碑の倭の記事と倭の實體> 《好太王碑と集安の壁畫古墳》 (讀賣テレビ放送編, 木耳社, 東京) 54

박진석, 1993 <호태왕비와 고대조일관계연구> (연변대출판사) 300~304

85) 武田幸男, 1978 <高句麗好太王碑文にみる歸王について>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上卷 (吉川弘文館);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廣開土王碑’研究序說-》 (岩波書店, 東京) 141~143

86) 鄭寅普, 1955 <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 《庸齋白樂濬博士還甲紀念國學論叢》 (思想界社)

朴時亨, 1966 《廣開土王陵碑》 (社會科學院出版社, 平壤) 187

千寬宇, 1979 <廣開土王陵碑文 再論>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91 <加耶史研究> (一潮閣, 서울) 128

李亨求·朴魯姬, 1986 <廣開土大王陵碑新研究> (同和出版社, 서울) 85~87

金哲垞·崔柄憲編, 1986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古代篇> (一志社, 서울) 81

李鍾旭, 1992 <廣開土王陵碑 및 “三國史記”에 보이는 ‘倭兵’의 正體> 《韓國史市民講座》 11 (一潮閣, 서울) 44

新羅王=倭民說에 따라 해석하면, ‘倭人이 신라의 城들을 부수어, 奴客(=신라왕)을 (왜의) 백성으로 삼았으니, 王에게 歸依하여 분부를 청한다.’고 정리하게 된다. 이런 文句라면 신라왕이 고구려왕에게 합작을 청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실상이 이미 신라왕은 더 이상 고구려왕에게 歸依하거나 ‘請命’할 수도 없는 처지이므로, 矛盾된 말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新羅王=倭民說에 가담하면서도 ‘奴客으로 하여금 倭의 民으로 삼으려 하니’라고 번역한 예도 있으나,⁸⁷⁾ 문맥상으로 보아 이를 사태의 완결상태가 아닌 유보상태로 판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그래서 百濟王=倭民說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왜인이 신라 국경 내에 들어와 城池를 파괴하는데 어찌서 百濟王이 왜의 백성이 된 것을 언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新羅王=高句麗民說에 따라 C-2의 신라 사신의 말을 해석해 보면, ‘倭人이 그 國境에 가득 차 城池를 부수었으니, 奴客(=신라왕)은 (고구려의) 백성이 된 자로서 王에게 귀의하여 분부를 청한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되면 문맥이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뒤의 문장과도 연결에 무리가 없다.

신라 奈勿王의 그런 태도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C-3의 기사와 같이, 太王은 함께 일을 도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廣開土王은 사신을 돌려보내면서 密計를 奈勿王에게 고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永樂 10년 庚子條에 이어지는 전투 상황은 당연히 密計를 보낸 高句麗軍과 密計를 받은 新羅軍의 합동작전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3. 永樂十年庚子條의 檢討

永樂 10년 庚子條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判讀文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對照表를 작성하면 다음의 <表 2>와 같다.⁸⁸⁾ 여기서 필자가 새로이 釋文한 것은 II-9-8의 글자를 ‘卻’(却의 本字), II-9-9의 글자를 ‘乘’, II-9-38의 글자를 ‘妻’, II-9-41의 글자를 ‘夫’, II-10-20의 글자를 ‘煞’, II-10-21의 글자를 ‘抑’, II-10-22의 글자를 ‘徙’, III-2-19의 글자를 ‘服’으로 본 것이며, II-9-33의 글자는 보통 ‘城’으로 判讀되어 왔는데, 이를 알 수 없는 글자로 처리하고, II-9-34의 글자를 ‘農’으로 判讀하였다.⁸⁹⁾

87) 盧泰敦, 1992 <廣開土王陵碑文> 《譯註韓國古代金石文》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서울) 18

88) <표 2>를 작성하는 데 근거가 된 논저들은 앞의 주석 70에 인용된 것들 및 뒤의 주석 89에 인용된 논문이다.

기서 男居城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新羅城은 신라 수도 慶州라고 생각된다. 文面上으로는 두 城의 中間地帶에 倭軍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D-2 기사의 앞 부분으로 보아 고구려군이 오자마자 왜군은 퇴각했으며, 그 즉시 고구려군은 뒤를 타고 급히 추격하였다.

뒤에 이어지는 기사에 대해서는, 任那加羅의 위치와 從拔城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다. 任那加羅에 대해서는 慶尙北道 高靈으로 보는 견해⁹³⁾와 慶尙南道 金海로 보는 견해⁹⁴⁾가 있다. 여러 가지 사료들을 검토해 본 결과, 任那加羅는 원래 任那(창원)와 加羅(김해)의 合稱이 되, 廣開土王陵碑의 ‘任那加羅’는 金海의 加耶國을 중심한 加耶聯盟 全體를 지칭한 것이라고 판단된다.⁹⁵⁾ 그 결정적인 근거는 이 전쟁이 일어난 직후인 5세기 초에 金海의 大成洞 고분군은 급격히 몰락하고 高靈의 池山洞 고분군은 서

盧泰敦, 1992 <廣開土王陵碑文> 《譯註韓國古代金石文》 1, 18

93) 菅政友, 1891 <高麗好太王碑銘考> 《史學雜誌》 24(2-11), 49~50

大原利武, 1934 <任那加耶考> 《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集》

鮎貝房之進, 1937 <日本書紀朝鮮地名攷> 《雜攷》 7 상권, 52~53

李丙燾, 1959 《韓國史·古代篇》(震檀學會) 412; 1976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서울) 304

丁仲煥, 1962 《加羅史草》 144~145

千寬宇, 1977 <復元加耶史>(中) 《文學과 知性》 29, 920; 1991 《加耶史研究》(一潮閣, 서울) 27

金哲煥·崔柄憲, 1986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古代篇)》(一志社, 서울) 82

李永植, 1993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吉川弘文館, 東京) 171

金鉉球, 1993 《任那日本府研究 -韓半島南部經營論批判-》(一潮閣, 서울) 98

94) 那珂通世, 1896 <朝鮮古史考(加羅考)> 《史學雜誌》 7-3, 38

池內宏, 1947 《日本上代史の一研究》; 1970, 再版(中央公論美術出版) 75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大八洲出版); 1962, 再版(吉川弘文館, 東京) 67

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상권(吉川弘文館, 東京) 7~8

朴時亨, 1966 《광개토왕릉비》 194 (사회과학원출판사, 平壤)

金廷鶴, 1977 《任那と日本》(小學館) 231쪽; 1990 《韓國上古史研究》(범우사, 서울) 343

王健群, 1984b 《앞 책》 198

李亨求·朴魯姬, 1986 《앞 책》 89

鈴木靖民, 1988 <好太王碑の倭の記事と倭の實體> 《好太王碑と集安の壁畫古墳》(讀賣テレビ放送編, 木耳社, 東京) 57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塙書房, 東京) 78

高寬敏, 1990 <앞 논문> 157

田中俊明, 1992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加耶琴だけが殘った-》(吉川弘文館, 東京) 32

95) 金泰植, 1994 <앞 논문> 86

서히 대두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공격으로 함락된 곳, 즉 任那加羅는 김해 지역의 세력이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從拔城’에 대해서는 이를 城의 이름으로 보는 견해⁹⁶⁾ 또는 ‘城을 공략함에 따라’라는 文句로 보는 견해⁹⁷⁾가 있다. 두 견해가 다 가능하나, 후자의 견해를 따르더라도 이 때 任那加羅의 首都가 함락되었다고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비문에서 東夫餘의 수도를 ‘餘城’이라 하고 신라의 수도를 ‘新羅城’이라고 표기했다면, 임나가라의 중심지에 대해서도 ‘任那加羅’가 아닌 ‘任那加羅城’이라고 표기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왜군은 임나가라의 從拔城 또는 어떤 城으로 들어갔다가, 변변히 저항도 못하고 곧 항복한 것이다.

D-2 기사의 뒷 부분에 ‘安羅人戍兵’이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固有名詞로 보는 견해와 文句로 보는 견해로 대별된다. 고유명사로 보는 견해는 이를 咸安 安羅國人으로 구성된 守備軍으로 보는 것은 모두 일치하되, 그 성격을 ‘任那日本府의 別動隊’로 보는 견해와⁹⁸⁾ ‘百濟를 돕는 同盟軍’으로 보는 견해로⁹⁹⁾ 나뉜다. 文句로 보는 견해는

- 96) 那珂通世, 1893 <高麗古碑考> 《史學雜誌》 49(4-12), 33
 김석형, 1966 《초기조일관계연구》 (평양); 1988 《고대한일관계사》 (한마당, 서울) 405
 千寬宇, 1979 <廣開土王陵碑文 再論>; 1991 《앞 책》 130
 王健群, 1984b 《앞 책》 198
 武田幸男, 1989 《앞 책》 435
 高寬敏, 1990 <앞 논문> 163
 盧泰敦, 1992 <앞 논문> 19
 李鍾旭, 1992 <앞 논문> 45
- 97) 末松保和, 《앞 책》 74
 金哲煥·崔柄憲, 1986 《앞 책》 82
 安春培, 1992 <廣開土大王陵碑文 研究(I) -碑文의 文段과 解釋을 中心으로-> 《考古歷史學誌》 8 (東亞大學校博物館, 釜山) 315
- 98) 菅政友, 1891 <高麗好太王碑銘考> 《史學雜誌》 24(2-11) 49~50
 那珂通世, 1893 <高麗古碑考> 《史學雜誌》 49(4-12), 33
 末松保和, 《앞 책》 74
 武田幸男, 1985 <四~五世紀의 朝鮮諸國> 《シンポジウム好太王碑》; 1989 《앞 책》 120
 鈴木靖民, 1988 <앞 논문> 54~58
 田中俊明, 1992 《大加耶連盟의 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東京) 212
- 99) 김석형, 1966 《앞 책》; 1988 (한마당, 서울) 406
 千寬宇, 1977 <復元加耶史> (中) 《文學과 知性》 29; 1991 《앞 책》 27
 李永植, 1985 <加耶諸國의 國家形成問題> 《白山學報》 32; 1993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東京) 171~172
 李亨求·朴魯姬, 1986 《廣開土大王陵碑新研究》 (同和出版社, 서울) 90

‘신라인에게 수비시켰다’는 뜻의 句로 보는 견해와¹⁰⁰⁾ ‘(고구려가) 邏人을 두어 수비케 하였다’는 뜻으로 보는 견해로¹⁰¹⁾ 나뉜다.

맨 뒤의 설에 입각해 볼 때, 고구려는 평정한 任那加羅의 성에 巡邏兵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문자 표현상으로도 정규군의 대규모 주둔 또는 幕府 설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邏人(=邏人)’ 즉 巡邏兵을 안치한 것이므로, 주변에서 벌어지는 전투마저 종결되어 현저한 敵對威脅이 없어지면 철수할 정도의 부대였을 것이다.¹⁰²⁾

그에 이어지는 D-3의 기사로 보아, 고구려군은 新羅 □農城을 공략하였으며, 그에 따라 倭寇는 萎縮되어 潰滅되었다. 신라 □農城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任那加羅 從拔城의 주변에 있는 신라의 성으로서 加耶-倭 聯合軍에게 점령되었던 城이 아닐까 한다. 그 뒤에 ‘城夫十九 盡煞抑徙’¹⁰³⁾ 즉 城의 남자들은 열에 아홉을 모두 죽이거나 강제로 徙民시켰다는 구절이 이어진다. 이는 아마도 신라 □農城의 주민들이 加耶와 新羅의 국경선에 가까이 있으면서 신라를 배신하고 加耶-倭 聯合軍에게 쉽사리 걸타하여 투항한 데 대한 보복이었던 듯하다. 이 城에 대해서도 고구려는 巡邏兵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

D-4의 첫 글자인 ‘師’는 종래 ‘滿(水谷·武田釋文) 또는 ‘新(王氏釋文)으로 읽히던 글자를 다시 판독한 것으로서, 高句麗-新羅의 군대를 가리킨다. 그 이후의 문장은 판

金哲堉·崔柄憲, 1986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古代篇》 (一志社, 서울) 82

延敏洙, 1987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倭關係 記事의 檢討> 《東國史學》 21 (東國大學校, 서울) 23

박진석, 1993 《호태왕비와 고대조일관계연구》 (연변대출판사) 81

金鉉球, 1993 《任那日本府研究》 (一潮閣, 서울) 99

100) 王健群, 1984b 《앞 책》 199

鈴木英夫, 1987 <加耶·百濟と倭>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70~71

李賢惠, 1988 <4세기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變遷> 《韓國古代史研究》 1 (한국고대사 연구회) 177

安春培, 1992 <앞 논문> 315

李鍾旭, 1992 <앞 논문> 49

101) 高寬敏, 1990 <앞 논문> 161

金泰植, 1994 <앞 논문>

102) 高寬敏은 이를 ‘戰局에 臨機應變으로 對應하는 遊兵의 뜻’이라고 하였다. [1990 <앞 논문> 162]

103) 이 구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釋文들이 해석을 포기하였고, 王健群만이 ‘城內十九 盡拒隨倭’라고 하여, 고구려군에 의하여 평정된 新羅城 내의 주민들이 거의 모두가 倭를 따르기를 거절했다는 식으로 해석하였으나[王健群, 1984b 《앞 책》 161], 역시 뜻이 통하지 않는다. 글자 판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독할 수 없는 글자가 너무 많아서 해석할 수 없으나, 결국 高句麗-新羅 聯合軍이 어떤 城을 평정하고 나서 거기에 巡邏兵을 두어 지키게 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김해의 任那加羅를 중심으로 한 加耶聯盟諸國은 한동안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전쟁이 종결된 후의 상황을 보이는 D-5 기사 앞 부분의 ‘昔新羅寐錦 未有身來服事’에서 끝의 두 글자는, 종래 ‘朝貢’으로 보다가 水谷釋文에서는 未詳으로 처리하였고 王氏·武田釋文에서는 ‘論事’로 판독한 적이 있으나,¹⁰⁴⁾ 여기서는 ‘服事’로 판독하였다. 이는 글자 그대로 ‘옛날에는 新羅 寐錦이 몸소 와서 복종하여 섬긴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文句는 缺字가 많아서 완전한 뜻을 이해할 수 없으나, 이번 전쟁의 결과로 廣開土王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신라 寐錦이 몸소 와서 朝貢을 바쳤다는 뜻이다. 그 결과 고구려가 신라의 情勢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된 것이 이번 遠征의 또 하나의 목적이었다.

4. 永樂十四年甲辰條의 檢討

이어서 碑文에서 永樂 14년(404) 甲辰條의 譯文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E. 14년 甲辰에 倭가 법도를 지키지 않고 帶方界를 침입하였다. (중략) 石城을 □하고, 배를 잇대어 □□□하였다. 왕께서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여, 평양으로부터 □□하니 □鋒이 서로 마주쳤다. 왕의 군대가 적의 길을 도중에 끊고 휩쓸어버리니 倭寇가 궤멸하였다. 베어 죽인 것이 수없이 많았다.¹⁰⁵⁾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伏字에 百濟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설에는 ‘帶方界’ 뒤의 보이지 않는 글자들을 ‘和通殘兵’으로 읽기도 하였으나,¹⁰⁶⁾ ‘而倭’는 원석 탁본들에서 비교적 분명히 보이고, ‘和通殘兵’은 그럴 만한 심증은 가나 碑面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그래서 이를 제외하고 보면, 帶方界 즉 黃海道 방면에 왜군이 침입하였다가 高句麗

104) 武田幸男, 1989 《앞 책》 116

105) 《廣開土王陵碑文》 永樂十四年甲辰條 “而倭不軌 侵入帶方界 □□□□石城 □連船□□□. 王躬率□□從平穰 □□□鋒相遇. 王幢要截濫刺 倭寇潰敗 斬煞無數.”

106) 王健群 著, 林東錫 譯, 1985 《廣開土王碑研究》 (역민사, 서울) 208~210

平壤에서 출동한 廣開土王이 이끄는 군대에게 토벌되었다는 증거는 명백하다. 다만 이 비문만으로는 倭와 百濟의 연계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그저 倭軍의 반격으로만 보기도 하고,¹⁰⁷⁾ 百濟와의 결탁에 의한 공동작전으로 보기도 한다.¹⁰⁸⁾

王健群의 釋文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碑文 영락 9년(399) 己亥條에 ‘百殘違誓 与倭和通’이라는 문구도 나오고, 《三國史記》 百濟本紀에도 阿莘王 6년(397)의 ‘王與倭國結好’라는 기사가 나오므로, 碑文 永樂 14년 甲辰條의 기사는 百濟와의 공동작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5. 碑文 所載 倭軍의 性格

廣開土王陵碑文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몇 개의 倭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러던 한반도에서 활동했던 그 倭軍은 실제로 어떤 존재였을까? 비문에 보이는 행태로 보아, 왜군은 400년에 新羅城 주변에 있다가 쫓겨서 任那加羅의 從拔城으로 들어가 곧 항복하였으며, 404년에 배를 타고 帶方界에 침입하였다가 쫓겨났다.

400년에 倭軍이 任那加羅의 城으로 쫓겨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新羅의 首都인 慶州로부터 任那加羅의 首都인 金海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에 달한다. 당시에 고구려군은 步兵과 騎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왜병이 배를 타고 任那加羅로 퇴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왜군이 가까운 甘浦나 蔚山 또는 迎日 등에서 배를 이용하여 퇴각하지 않고 이 곳까지 陸路로 도망해 왔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三國史記》 新羅本紀를 통해서 볼 때, 배를 타고 오는 倭兵이 신라 수도를 공격하려면 동해안 쪽에 배를 대놓고 들어오는 것이 通常的이었다.¹⁰⁹⁾

혹은 永樂 10년조에 보이는 왜군 인원 구성의 주력이 加耶人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107)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 75

108)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서울) 384

王健群, 《위 책》 275

鈴木靖民, 1988 <앞 논문> 63~64

109) 왜인이 신라에 東쪽으로 침입해 들어왔음을 알리는 기록을 《三國史記》 新羅本紀 1~3에서 찾아보면, 南海次次雄 11년조, 祇磨尼師今 10년 4월조, 助賁尼師今 3년 4월 및 4년 5월조, 實聖尼師今 6년 3월조, 訥祇麻立干 15년 4월조, 慈悲麻立干 2년 4월 및 19년 6월조 등을 들 수 있다. 왜인의 침입 방향을 명확히 표시하지는 않았어도, 그들이 토함산 쪽으로 퇴각했다든가 하는 것을 통하여 동쪽임을 알 수 있는 것은 더욱 많다. 반면에 왜인이 南쪽에서 침입해 온 것은 극히 적고, 西쪽에서 육로로 침입해 왔음을 알리는 기록은 없다.

당시 倭側의 海上 輸送能力을 문제 삼아, 廣開土王陵碑文의 倭는 대부분이 왜를 詐稱하는 加耶人이고 거기에 가야에 거주하는 倭人이 약간 섞여있을 뿐이었다는 井上秀雄의 견해도¹¹⁰⁾ 참고가 된다. 훗날 6세기 중엽 管山城 전투의 경우, 수만 명이 참가하는 백제-가야-왜 연합군에서 왜군의 숫자는 1,000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碑文의 倭賊이란 것도 실은 百濟의 후원을 받는 加耶-倭 聯合軍으로서, 인원상의 주축은 加耶人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구려는 服飾이 다른 倭를 과도하게 인식한 것이다.

또한 《三國史記》 朴堤上傳에 그가 왜국에 도착했을 때(新羅 訥祗王 2년, 418)의 기사에 의하면, 前에 百濟人이 倭에 들어와 신라와 고구려가 倭王國을 침략하려 한다고 ‘讒言’하여, 倭가 병사를 보내 ‘신라 국경의 밖’에서 ‘邏戍’케 하였는데, 고구려가 쳐들어와 왜의 ‘邏人’을 모두 잡아 죽였으므로, 倭王이 百濟人의 말을 참으로 믿었다고 한다.¹¹¹⁾ 이에 대하여 여기서의 백제인은 백제 태자 腆支이고 그는 볼모가 아니라 왜국 군대의 출동을 유도하기 위해 간 사신이라는 견해¹¹²⁾가 있는데, 이는 타당한 추론이다. 여기서 왜의 巡邏兵이 신라 국경 밖 즉 加耶地域에 들어와서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정세를 탐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巡邏兵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왜병의 규모는 대군이 아니라 소규모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이 倭軍의 동원에 百濟의 의도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백제는 가야와 왜 사이의 우호관계를 이용하여 고구려 후방의 신라를 견제하고 유사시에는 왜군을 동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加耶地域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하여, 加耶人의 존재를 전연 배제하고 다른 외부 세력들 사이의 이해관계만 생각한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加耶人의 의사를 염두에 두고 추정해 본다면, 任那加羅는 전통적 우호관계에 따라 倭의 巡邏兵을 받아들여 신라 쪽 변경의 城에 주둔시켰고, 그들에게 신라 및 고구려의 동향을 정찰케 하는 일을 맡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倭軍은 任那加羅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고 임무를 수행 중이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任那加羅와 倭의 관계는 대등한 계약에 의한 僱傭關係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신라는 加耶가 倭와 동맹하여 자기 영토 內에 출몰하면서 변경의 세력을 통합해 나가는 것을 혼자서 감당할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신라는 급격한

110) 井上秀雄, 1973 《任那日本府と倭》(寧樂社) 120~121

111) 《三國史記》 권45 列傳5 朴堤上傳 “遂徑入倭國 若叛來者. 倭王疑之. 百濟人前入倭 讒言 新羅與高句麗謀侵王國. 倭遂遣兵邏戍新羅境外 會高句麗來侵 并擒殺倭邏人. 倭王乃以百濟人言爲實.”

112) 김석형, 1988 <삼국사기를 통하여 본 4세기 말 5세기 초의 조일관계에 대하여> 《역사과학》 88-2 (평양) 28

수단으로 고구려를 끌어들이어 任那加羅의 세력을 꺾어 놓으려고 倭軍의 존재를 과도하게 부각시킨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전투는 고구려측 碑文의 記述에 따라 高句麗軍과 倭軍이 치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상은 해당 지역인 洛東江流域을 둘러싼 兩大勢力 즉 新羅와 加耶 사이의 패권 다툼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그것은 이 전쟁의 결과 가야의 일부 소국들이 신라로 이탈하여 洛東江을 경계로 新羅-加耶 文化圈이 본격적으로 분화되는 樣相을¹¹³⁾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의 步騎 5만 대군은 소수의 왜군을 겨냥한 군대가 아니라, 신라의 요청에 따라 그 배후의 가야연맹 핵심부를 치기 위해 동원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전쟁의 결과로 전기 가야연맹을 주도하는 김해의 가야국은 멸망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의 마지막 대형 고분인 대성동 1호분이 축조된 이후, 갑자기 무덤 축조가 중단되는 것은 가야 왕실의 몰락을 반영하는 것이다. 고구려는 가야 정벌을 통하여 백제와 왜를 견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신라로부터도 일정한 反對給付를 취하였을 것이다.

404년에는 倭軍이 어째서 九州, 加耶, 百濟를 지나 帶方界에까지 나타나 고구려와 싸웠는가? 帶方界는 당시에 高句麗와 百濟의 境界地域이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 왜군이 가야를 돕기 위한 군대인가, 또는 백제를 돕기 위한 군대인가 하는 점이다. 문헌 사료 상으로는 397년에 阿莘王이 倭國과 우호를 맺었다거나,¹¹⁴⁾ 廣開土王이 399년에 百濟와 倭가 和通한다는 것을 듣고 平壤城으로 내려갔다는 것으로¹¹⁵⁾ 보아, 일단 百濟의 援兵이었다고 생각된다. 404년에 帶方界에 나타나 (殘兵과 화통하여?) 배를 이어 공격하다가 궤멸 당했다는 ‘倭寇’는 백제를 위해 동원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외국의 軍兵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 필요가 있었던 것은 廣開土王 즉위 이후 고구려에 비하여 군사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던 百濟였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397년에 처음으로 국교를 맺은 백제의 왕자 腆支가 倭國에 가자마자 대규모의 倭兵을 동원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백제 왕자가 아무리 고구려가 倭를 치러 올 것이라고 위기의식을 조장했다고 해도, 또 왜가 가야에 파견했던 소수의 巡邏兵이 고구려군에게 패배했다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왜군이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戰線에 대거 투입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399년과 400년에 신라를 침입했다는 왜군은 행동반경으로 보아 加耶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그 동안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나 기록으로 보아서도, 왜군은 加耶를 위한

113) 金泰植,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권 (푸른역사, 서울) 157~165

114) 《三國史記》 권25 百濟本紀3 阿莘王 6年條

115) 《廣開土王陵碑》 永樂 9年 己亥條

군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의 日本列島에 가야의 문물은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백제의 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404년의 왜병은 백제가 危機意識을 조장하여 끌어들인 것이었다고 해도, 역시 加耶를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가야와 왜는 전통적으로 鐵을 통하여 밀접한 교류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본열도의 鐵生産은 한반도 남부에 비해 500년 이상 늦어서, 일본에서 製鐵이 행해지지 않던 5세기 후반까지 왜는 교역을 통하여 가야로부터 鐵素材를 입수해서 이를 가지고 鍛冶過程을 거쳐 철기를 생산하였다.¹¹⁶⁾

그런데 金海의 가야국이 鐵을 왜에 수출하여 무엇을 주로 수입했는가는 분명치 않다. 혹자는 加耶인들이 倭로부터 勞動力을 수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4세기 전반에 김해나 부산 등지에서 발견되는 北九州 및 山陰 지역의 土師器들은 일본열도에서 노동력으로 제공된 왜인 1세대가 가져온 토기들이라는 것이다.¹¹⁷⁾

《三國志》 魏書 倭人傳의 기록으로 보아도, 2~3세기에 왜의 對中國 교역 상품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특정한 물건이라기보다 人的 資源인 男女生口, 즉 奴婢에 해당하는 노동력이 대표적인 것이었다.¹¹⁸⁾ 위의 유물 출토 상황으로 볼 때, 왜의 이러한 전통은 가야에서도 그대로 통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좀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土師器의 출토 지역 분포로 보아, 그 왜인들은 가야에서 苦役인 제철 과정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황적으로 보더라도 鐵素材의 수요자인 왜가 그 철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해 달라는 가야의 거래 조건을 거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제적 교류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116) 藤尾慎一郎, 2002 <彌生時代の鐵> 《第5回 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發表要旨》(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17~22

東潮, 2002 <弁辰と加耶の鐵> 《위 책》 29~34

穴澤義功, 2002 <日本古代の鐵生産> 《위 책》 58~63

大澤正己, 2002 <金屬學的分析からみた倭と加耶の鐵 -日韓の製鐵·鍛冶技術-> 《위 책》 71~80

117) 申敬澈, 2000 <금관가야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해안, 서울) 73~77

118)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倭傳 “安帝永初元年(107) 倭國王帥升等獻生口百六十人 願請見。”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倭人傳 “景初二年(238)六月 倭女王遣大夫難升米等詣郡 求詣天子朝獻(中略) 奉汝所獻男生口四人 女生口六人 班布二匹二丈 以到。(中略) 正始元年(中略) 其四年(243) 倭王復遣使大夫伊聲耆·掖邪狗等八人 上獻生口·倭錦·絳青縑·縣衣·帛布·丹木·猴·短弓矢。”

교환의 성격을 떠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4세기 후반에 가야국이 철소재 공급의 대가로 왜국에 대하여 원하는 것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야는, 고구려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가는 신라와 패권을 겨루고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왜의 군사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제는 가야와의 교섭 과정에서 가야와 왜 사이의 人的·物的 資源交易 전통을 확인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증폭하여 자신과 고구려 사이의 전쟁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던 듯하다. 그러한 필요성은 고구려와의 전쟁이 급박해지는 4세기 말의 단계에 고조에 달했을 것이다. 가야는 자신들이 생산한 鐵의 대가로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대내외적인 영향력 강화의 계기로 여기고 이에 응하였다고 보인다.

즉 김해의 加耶國은 對內的으로 加耶聯盟 내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對外的으로 신라에 대항하고 백제와의 선진문물 교류에 응하기 위하여 倭의 軍事力을 동원한 것이다. 이에 따라 4세기 후반에 전통적인 倭의 교역상품인 生口가 加耶에서 원하는 다른 성격의 人的 資源인 軍事力¹¹⁹⁾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고대 일본의 이른바 ‘南韓經營’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평상적인 가야와 왜 사이의 人的·物的 資源交易 전통이 백제의 개입으로 증폭되어 고구려와의 전쟁에 투입된 것, 즉 백제의 異民族 動員能力이라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三國史記》新羅本紀에 나오는 신라를 침공한 倭人·倭兵은 시기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사료 原典에 대하여 추구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대체로 季節的으로 약탈을 행하는 海賊의 성격을 띠고 보이나¹²⁰⁾ 그 중에 일부는 가야의 지원을 받은 왜군이 가야 영역에 들어와 있다가 신라를 공략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¹²¹⁾

119)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 《倭國と東アジア》(鈴木靖民編, 吉川弘文館, 東京) 15

120) 旗田巍, 1975 <三國史記新羅本紀にあらわれた倭> 《日本文化と朝鮮》 2

121)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 第3 慈悲麻立干 6년(463) 조의 敵良城 침입 기사가 그런 것 중의 하나이나, 그 전에도 그런 성격의 것이 있을 수 있다.

IV. 韓國과 日本의 4世紀 武裝體系 比較

1. 遺蹟 概觀

이미 고대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던 중국 동북부 및 한반도 북부의 高句麗를 제외하고 볼 때, 4세기의 한반도 남부에는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墓制들이 출현하여, 한강 유역에는 基壇式 積石塚과 木棺封土墳,¹²²⁾ 호남지역에는 甕棺墓,¹²³⁾ 慶尙南·北道 동부지역에는 細長方形 平面의 慶州型 木槨墓, 낙동강 유역에는 廣幅形 平面의 金海型 木槨墓 등이 나타났다.¹²⁴⁾ 이는 옛 古朝鮮 지역에 들어와 수백 년간 지속된 漢郡縣의 작용으로 인하여 남한지역의 정치적 통합이 한동안 지연되다가 樂浪郡이 약화되는 2세기 후반 이후에 정치권력이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성장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三國志》 韓傳에 “그 풍속은 衣幘을 좋아하였으니, 下戶들이 郡에 이르러 朝謁하면 모두 衣幘을 주는데, 스스로 印綬와 衣幘을 만들어 착용한 사람도 1천여 인이나 되었다.”¹²⁵⁾는 기록으로 보아, 2~3세기 이래 남한의 여러 단위 세력들은 선진 문물의 구입을 위하여 육지로 접해 있는 漢郡縣과 적극적으로 교섭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생산기술이나 생활양식을 비롯한 문화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올라 있었다. 이러한 점은 4세기의 서울 石村洞 고분군, 慶州 政來洞 고분, 김해 大成洞 고분군 등에 보이는 鐵鋌, 鐵製甲冑, 鐵銼를 비롯한 武器類, 다양한 陶質土器 등의 유물로 보아 확인된다. 그러므로 전국적 규모의 정치적 통합은 늦었다고 해도, 4세기 이후에 남한의 여러 개별 세력들은 높은 문화 수준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적인 통치 체제 수립 면에서도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하여 백제는 이미 3세기 중엽 古爾王 때에 연방제의 성격을 지닌 초기 고대국

122) 林永珍, 1995 《百濟漢城時代古墳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朴淳發, 2001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서울) 140~156

123) 성낙준, 1983 <영산강유역의 웅관묘 연구> 《百濟文化》 15 (공주사대 백제문화연구소, 공주)

이정호, 1999 <영산강유역의 고분 변천과정과 그 배경> 《榮山江流域의 古代社會》 (崔盛洛 編著, 學研文化社, 서울) 106~108

124) 申敬澈, 1995 <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 《釜大史學》 19 (釜山大學校, 釜山)

125)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韓條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 千有餘人.”

가를 성립시키고, 4세기 후반 近肖古王 때에는 중앙집권화에 성공하여 성숙한 고대국가로 발전하였다. 신라는 4세기 후반 奈勿王 때에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의 지원을 받고 대내적으로는 왕호로 麻立干을 사용하면서 연맹체 조직을 한 단계 강화하여, 대외적으로 고대국가처럼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가야는 4세기 후반에 대외적으로 백제 및 왜와 연결하면서 다시 하나로 통합되어 발전하였으며, 대내적으로 기록은 미비하나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경주 황남동 109호분의 비교로 보아 신라에 못지않은 권력 집중을 상징할 수 있다.¹²⁶⁾

반면에 4세기의 일본열도에는 畿内 지역부터 북부 九州까지 前方後圓墳이 확산되어 있었으며 이를 古墳時代 前期라고 부른다. 그 시기의 시작에 대해서 기왕에는 3세기 말부터로 보아 왔으나 근래에는 이를 3세기 중엽으로 올려보는 견해가¹²⁷⁾ 유력하다. 전기 고분의 존재 양상으로 보아 그 고분의 축조자들은 하나의 정치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그 중핵은 畿内の 야마토 정권이였다.

일본열도에서 전국적 규모의 정치적 통합이 비교적 일찍 이루어진 원인은, 本州의 輿地에 있는 畿内 首長聯合勢力이 한반도 남부와 교통하기 위해 瀬戸内海와 北九州까지의 通路를 개척한 것에 있다고 한다. 그 지역에서는 고대국가 권력의 성장에 필수적인 鐵이 거의 산출되지 않아 이를 외부로부터 획득해야 하고, 또한 大首長の 권위와 교역 능력을 주변의 다른 首長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外來 威勢品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²⁸⁾ 《三國志》 倭人傳에 女王國이 각국의 교역에 대하여 大倭를 시켜 감시하게 하고, 一大率을 伊都國에 설치하여 제국을 감찰함으로써 中國과 韓國에 대한 遠距離交易을 감독케 했다는¹²⁹⁾ 것과 같이, 문헌자료를 통해서도 이미 3세기 전반에 일본열도에서 交易과 관련한 聯盟長 권한이 발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한 고고학자는 이러한 畿内 왜정권의 지리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왜는 한반도 남부의 철을 안정되게 입수하는 물자 유통시스템을 掌握하기 위하여 중앙정권 차원에서 가야나 백제가 구한 同盟에 응하여 한반도 남부사회에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적극 개입하였다고 보았다.¹³⁰⁾ 이는 문헌사료의 분석에 의한 고전적 任那日

126) 金泰植, 2003 <初期 古代國家論> 《강좌 한국고대사》 제2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서울) 71~89

127) 白石太一郎, 1999 《古墳とヤマト政權》 (文春新書 036)

128)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東京) 73~74

129)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倭人條 “國國有市 交易有無 使大倭監之. 自女王國以北 特置一大率 檢察諸國 諸國畏憚之. 常治伊都國 於國中有如刺史. 王遣使詣京都帶方郡諸韓國 及郡使倭國 皆臨津搜露 傳送文書賜遺之物詣女王 不得差錯.”

130) 都出比呂志, 1998 <總論 -彌生から古墳へ> 《古代國家はこうして生まれた》 (角川書店,

本府說과는 표현방식이 다르지만, ‘掌握’ 또는 ‘政治的 介入’ 등의 용어를 통하여 적어도 가야에 대하여 왜가 우위에 선 군사적·정치적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4세기, 즉 일본 古墳時代 前期의 前方後圓墳들에서 나온 유물들은 銅鏡, 碧玉製 가래모양 팔찌[鍬形石]와 바퀴모양 팔찌[車輪石] 등과 같이 司祭者的 성격을 띠는 부장품을 편년 기준으로 삼고 있다.¹³¹⁾ 이로 보아 4세기 일본열도의 지배 권력은 실질적인 무력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儀禮的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통치체제도 관료제에 기반을 둔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세력의 독립성이 온존한 序列化 되어 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¹³²⁾ 그렇다면 실질적인 무력에 기반을 둔 권력이 아니라 4세기 일본열도 주민들의 고유한 정신세계나 사회질서에서만 통하는 권력이 한반도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그런 관계를 한반도와 왜 두 지역 분묘의 부장품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본고에서 논의의 핵심이 되는 것은 廣開土王陵碑文에 나오는 倭軍의 성격이므로, 高句麗, 百濟, 加耶, 倭의 전쟁 수행능력에 관련 있는 武器, 馬具, 甲冑 등을 정리해 보자.

2. 高句麗의 武裝體系

발굴 유물을 통해 고구려의 무기를 살펴보면, 쏘는 병기[射兵]인 쇠화살촉[鐵鏃]과 긴 병기[長兵]인 쇠투검창[鐵鋒]이 많고 그 다음으로 짧은 병기[短兵]인 고리자루칼[環頭大刀]과 鐵劍이 출토되고 있다.¹³³⁾ 14기의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오는 무기들을 정리해 볼 때, 4~5세기 고구려 무기의 비율은 쇠투검창 46.85%, 활[弓] 16.78%, 고리자루칼 10.49%, 철검 2.99%, 短刀 1.39%로서, 쇠투검창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¹³⁴⁾ 이는 3세기 이전의 漢代와 같이 刀를 위주로 하였던 것에서 4~5세기에는 중장기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병종의 성립을 바탕으로 창 중심의 무기체계가 확립되어 刀는 보조무기로 사용되었음을 반영한다.¹³⁵⁾

東京) 42~44

131) 增田精一, 2001 《日本國の成立》(學生社, 東京) 80

132) 4~6세기 일본열도의 사회발전단계에 대해서는 聯邦制國家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初期國家論(都出比呂志, 田中琢, 松木武彥)과 聯盟體社會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首長聯合論(和田晴吾, 佐佐木憲一)이 있으나, 4세기의 사회 성격은 역시 연맹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제 V 장 제 6 절에서 후술함.

133) 魏存成, 1994 《高句麗考古》(吉林大學, 吉林)

134) 李仁哲, 2000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백산자료원, 서울) 261~262

또한 4~5세기 고구려 고분 벽화에 묘사된 行列圖에서 군대 구성을 보면 보병 : 기병이 73명 : 59명으로서 보병의 비율이 약 10% 정도 높다.¹³⁶⁾ 그런데 그 행렬도의 호위 행렬 구성은, 安岳 3號墳(서기 357년)이 7列縱隊, 德興里 壁畫古墳(서기 408년)은 5列縱隊, 藥水里 壁畫古墳(5세기 전반)은 3列縱隊를 이루되, 시기별로 重裝騎兵들의 위치에 변화가 있다. 여기서 重裝騎兵이란, 鐵甲을 두른 말을 타고 쇠투겁창을 들고 미늘갑옷[札甲]과 투구[冑]를 착용한 兵士들을 가리킨다. 안악 3호분 단계에는 안쪽의 步兵 4列과 바깥쪽의 重裝騎兵 2列이 墓主를 호위하다가, 덕흥리 고분 단계에는 바깥쪽 重裝騎兵의 위치는 그대로이나 안쪽의 步兵 4列이 사라지고 대신에 輕裝騎兵 2列이 생겼으며, 약수리 고분 단계에서는 輕裝騎兵 2列만이 호위를 맡고 重裝騎兵은 그 背後의 密集隊形 騎兵隊로 변모해 갔다.¹³⁷⁾

이로 보아 고구려의 군대는 4세기 중엽에는 步兵과 騎兵이 조화된 형태에 있다가 5세기로 넘어와서는 전체가 騎兵 위주로 운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400년 당시에 가야지역에 遠征 온 고구려 步騎 5만의 면모는 안악 3호분과 덕흥리·약수리 고분에 나오는 행렬도의 중간적인 모습, 즉 보병과 기병이 병존하되 重裝騎兵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상태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3. 百濟의 武裝體系

백제의 초기 마구는 최근에 한반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으나, 아직 3세기의 것은 없고, 4세기 이후 재갈[轡]과 발걸이[鐙] 위주로 출토되었다. 재갈은 봉모양 재갈머추개가 달린 재갈[鑣轡]이 80%를 점하고, 발걸이도 초기부터 부분 보강한 목심철판장 발걸이[木心鐵板張鐙]와 같은 실용적 마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중국 동북지방의 鮮卑系 마구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4세기 전반에는 짧은 주걱자루 모양의 고삐이음쇠[引手]를 가진 재갈이 나오다가, 4세기 후반에는 긴 고삐이음쇠를 가진 재갈이 나왔다.¹³⁸⁾

백제의 무기 체계는 지금까지 출토된 유물이 대부분 경기도 남부 華城과 충남 天

135) 余昊奎, 1999 <高句麗 中期的 武器體系와 兵種構成> 《韓國軍事史研究》 2호 (國防軍事研究所, 서울) 71~73

136) 위의 주석과 같음.

137) 李蘭暎·金斗喆, 1999 《韓國의 馬具》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果川) 226~229

138) 成正鏞, 2003 <百濟漢城期 騎乘馬具의 樣相と起源> 《古代武器研究》 4 (古代武器研究會·滋賀縣立大學考古學研究室, 彦根) 28~29

安, 淸州, 公州, 大田, 益山, 舒川 일대의 것이고 중앙인 서울지역의 것이 없어서 일정한 한계성이 있다. 그런 상태나마 대체적인 변화 양상을 보면, 3세기의 것은 단면 렌즈형 쇄투검창과 다양한 형식의 쇄화살촉이 중심을 이루면서 일부의 고리자루칼[素環頭大刀]이 있어서 《三國志》나 《晉書》의 기록과 대체로 부합된다.

그러나 3세기 말 내지 4세기 전반에 찌르는 기능 위주의 쇄투검창이 출현하였고, 4세기 후반에 쇄투검창은 大·小形으로 기능적 분화를 이루며 칼은 裝飾大刀도 나타나지만 騎乘戰을 위한 실전적인 나무자루칼[木柄刀]이 보조무기로 보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백제에서도 騎乘馬具의 확산에 따라 이전의 보병 중심에서 기병·보병의 兵種이 분화 편제되는 데, 기병의 경우에 고구려와 같은 重裝騎兵보다는 輕裝騎兵 위주였을 가능성이 높다.¹³⁹⁾

4. 加耶의 武裝體系

가야지역의 경우에는 3세기 후반 이후 김해 대성동 고분군, 부산 복천동 고분군 등에서 騎乘用 실용 馬具와 鐵製甲冑, 공격용 鐵製武器 등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4세기의 가야 마구는 대부분이 봉 모양 채갈멈추개가 달린 채갈[鑣]로서 철봉을 끼어서 만든 2연식의 채갈쇠[銜]와 긴 고삐이음쇠[引手]를 갖추고 있으며,¹⁴⁰⁾ 이는 重裝騎馬戰術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동북아시아의 여러 가지 마구 제작 기술을 결합하여 개량한 것이다.¹⁴¹⁾ 4세기 후반에는 목심철판피 발걸이[木心鐵板被輪鎧子]와 하트모양 말띠드리개[心葉形杏葉]도 출토되어 重裝騎馬戰術의 구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5세기 초에는 그것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¹⁴²⁾

4세기 가야의 방어구에는 종장판 정결 판갑옷[縱長板釘結板甲], 북발형 투구[伏鉢形冑], 미늘갑옷[札甲] 등이 있으나 주류는 종장판 갑옷이다.¹⁴³⁾ 이 중에서 북발형 투구와 미늘갑옷은 북방 유목민족의 갑주에 원류를 두고 있으나, 종장판 정결 판갑옷은 영남지역 특유의 갑옷 형식으로서, 이는 3세기 이전의 나무갑옷[木甲] 또는 가죽갑옷

139) 成正鏞, 2000 <中西部地域 3~5世紀 鐵製武器의 變遷> 《韓國考古學報》 42 (韓國考古學會) 137~138

140) 申敬澈, 1994 <加耶 初期馬具에 대하여> 《釜山大學校, 釜山》

141) 金泰植·宋桂鉉, 2003 <韓國의 騎馬民族論>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果川) 251~254

142) 《위 책》 258~262

143) 宋桂鉉, 2001 <4~5세기 동아시아의 갑주> 《4~5世紀 東亞細亞 社會와 加耶》 (김해시 발표요지) 27

[皮甲]이 북방으로부터 새로이 유입된 철제 복발형 투구 및 미늘갑옷의 자극에 의해 철제로 전환된 것이다.¹⁴⁴⁾ 그러므로 가야의 기마 무장은 3세기 말에 이 지역에 들어온 북방 주민들의 문화를 토대로 4세기에 이 지역에서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야의 무기는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전반에 걸쳐 공격용 무기가 매우 발달하여, 쇠투겁창[鐵鎗]은 鎗身の 폭이 좁아지고 斷面이 마름모꼴[稜形]로 제작되었으며, 쇠화살촉[鐵鏃]도 축의 무개를 증대시킨 長頸式으로 개량됨으로써, 둘 다 人馬에 貫通되었을 때의 殺傷力이 극대화되었다.¹⁴⁵⁾ 이는 4세기에 들어 가야지역 내부 소국 사이, 또는 신라와 가야 사이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고 이에 대응하여 지배층들도 전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치명적인 무기 개발에 주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야에서 무력에 의한 권력집중과 동시에 전문 戰士集團이 나타나 기마전과 원거리 공격이 주요한 전술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5세기 이후였으나,¹⁴⁶⁾ 이미 4세기 후반에는 소수의 專業의이고 特權의인 戰士集團이 武裝을 통해서 지배계층으로 등장했다.¹⁴⁷⁾ 혹은 4세기의 김해 대성동 유적은 영남지역에서 가장 이른 단계에 갑주와 마구를 갖추고 공격용 무기의 多種·複數 副葬을 통한 개인집중화를 이루어 '武裝의 最上級 遺蹟이 등장'한 상태임을 보이고, 그 인근의 상급 및 중급 유적에서도 무장 보유자들, 즉 半專業의 常備軍이 존재하여, 가야의 지배세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군사 동원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고도 한다.¹⁴⁸⁾

5. 倭의 武裝體系

백제나 가야에 비하여 일본열도에서는 4세기대에 소급할 수 있는 金屬製馬具가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으며, 5세기가 되어서야 가야로부터 개별적으로 수용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¹⁴⁹⁾ 일본 古墳時代의 馬具에 대한 연구로서 小野山節은 일찍이 편년 작업

144) 申敬澈, 1994 <加耶 初期馬具에 대하여> 《釜大史學》 18; 2000 <금관가야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해안, 서울)

145) 金泰植·宋桂鉉, 《앞 책》 279

146) 宋桂鉉, 2001 <전쟁의 양상과 사회의 변화> 《고대의 전쟁과 무기》 (제5회 부산북천박물관 학술발표대회, 부산)

147) 李賢珠, 2002 <福泉洞古墳群의 武器副葬樣相을 통해 본 軍事組織의 形態> 《博物館研究論集》 9 (부산박물관, 부산)

148) 金斗喆, 2003 <무기·무구 및 마구를 통해 본 가야의 전쟁>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해안, 서울) 145

149) 金斗喆, 2002 <馬具와 地域間交流> 《고대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왜와 가야의 교류》 (第

을 하여, “오로지 수입품에 의존한 시기”를 제1기로 설정하고¹⁵⁰⁾ 발걸이[鎧子] 형태의 차이를 가지고 제1기를 古式과 新式으로 나누어 보았다.¹⁵¹⁾ 이에 대하여 中村潤子は 5세기 전반의 제1차 도입기(古式)에 전해진 한반도 낙동강 하류역의 마구는 결국 일본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끝났으며, 5세기 후반의 제2차 도입기(新式)에 검릉형(劍菱形) 또는 편원검미형 말띠드리개[扁圓劍尾形杏葉]와 f자형 재갈멈추개[f字形鑿板]로 표상되는 陝川 玉田 계통의 마구가 들어와 그것이 비로소 일본에서 계승 발전되었다고 하였다.¹⁵²⁾ 즉 일본에 4세기대의 기마 문화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갑주의 경우에, 橋本達也는 일본 코훈시대 초기에 나타나는 소찰 혁철 투구[小札革綴胄]는 중국 계보의 舶載品이고, 전기 중엽 이후(4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수신판 혁철 판갑옷[豎矧板革綴短甲]과 방형판 혁철 판갑옷[方形板革綴短甲]은 한반도 남부의 종장판 정결 판갑옷[縱長板釘結板甲]의 영향을 받아 일본 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고, 코훈시대 중기 중엽(5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鉞留 기법의 판갑옷, 미늘갑옷[掛甲], 차양 달린 투구[眉庇付胄] 등은 한반도의 工人이 일본열도로 건너가서 새로운 체제에 의하여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였다.¹⁵³⁾ 다만 위에서 언급된 소찰 혁철 투구는 극소수 최고위층의 威勢品이었을 뿐이고, 수신판 및 방형판 갑옷은 가야의 판갑옷을 제대로 具顯하지 못하여 전체 구조나 제작 기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일본열도의 4세기 갑주 문화는 미숙한 것이었다.

또한 왜는 4세기대에 短劍, 短刀, 두께가 얇은 양날창[鉞]과 쇠화살촉 등의 무기를 주로 사용하고, 5세기에 와서야 攻擊具의 주류로서 長刀를 채택할 정도였다.¹⁵⁴⁾ 두께가 얇은 양날창[鉞]과 쇠화살촉은 어느 정도의 갑옷과 방패만 있으면 치명상을 입힐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다. 그러므로 왜의 무장은 일부 射兵이 부가되어 있으나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短兵器가 주류이고, 실전적인 무기로서보다는 과시적인 威信財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인다. 고구려, 백제, 가야에서 기마 무장과 관련하여 성행

5回歷博國際심포지움, 日本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150) 小野山節, 1959 <馬具と乘馬の風習> 《世界考古學大系三 日本3 古墳時代》(平凡社, 東京)

151) 小野山節, 1966 <日本發見の初期の馬具> 《考古學雜誌》52-2 (日本考古學會)

152) 中村潤子, 1991 <騎馬民族說の考古學> 《考古學 その見方と解釋》(筑摩書房); 森浩一 編, 1993 《馬の文化叢書 第一卷 古代 -埋もれた馬文化》(馬事文化財團, 横浜)

153) 橋本達也, 2002 <古墳時代甲冑の系譜 -朝鮮半島との關係-> 《第5回 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發表要旨》(國立歷史民俗博物館 발표요지, 佐倉) 115~118

154) 松木武彦, 1999 <古墳時代の武裝と戦闘> 《戦いのシステムと對外戰略》(東洋書林, 東京)

했던 主武器인 鎧部를 가진 쇠투갑창은 끝내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4세기의 왜가 그런 정도의 무기밖에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유효한 鐵 생산 기술의 無知, 철기 제작 기술의 落後, 가야의 전략적 기술 및 무기에 대한 搬出統制 등도 작용하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일본열도가 선진적인 외부 세력과의 치열한 전투 경험이 없고, 야요이시대 이래의 평화적이고 의례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서로 신하로서 굴복하는 데 만족하는 ‘足相臣服’¹⁵⁵⁾의 전통이 아직 유지되고 있어서, 더 이상의 치명적인 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4세기 말까지 고구려와 가야 및 왜의 마구, 갑주, 무기의 문화 양상을 이처럼 비교해 보았을 때, 고구려는 鮮卑族의 국가인 前燕과의 실전을 거치면서 이미 重裝騎兵으로 대표되는 선진적 騎馬武裝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단계였다. 가야도 이미 4세기에 일부의 상층부를 중심으로 마름모꼴 단면의 쇠투갑창[斷面稜形鐵鏃]과 종장판 정결 판갑옷[縱長板釘結板甲] 위주의 선진 무장체계를 마련하고 重裝騎兵 전술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이용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조직적인 戰備 체계를 구축하거나 또는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였다.¹⁵⁶⁾

반면에 왜는 내부적으로 2세기 후반에 장기간에 걸치는 大亂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 평화적이고 주술적이었다. 4세기의 왜는 지역세력 상호간의 질서를 존중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전반적인 무장 체제도 重裝騎兵 전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므로 4세기에 한반도 남부는 백제, 가야, 신라로 분열되어 있었고, 일본열도는 교역의 필요성 때문에 畿內 지역을 중심으로 일원적 권위가 조성되어 있었다고 해도, 그 권위 자체가 의례 위주의 한계성이 있는 것이고 전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마구, 갑주, 무기의 격차가 큰 상태에 있었으므로, 왜가 가야에 대하여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가야에서는 이르면 기원전 1세기, 늦어도 기원후 2세기부터는 鐵을 量産하고 있었고, 일본열도에서는 5세기 후반까지 철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다.¹⁵⁷⁾ 이는 가야가 製鐵 기술을 일본열도로 전해 주지 않았으며, 한편으로는 일본의 畿內政

155)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第30 倭人條 “其俗 國大人皆四五婦 下戶或二三婦. 婦人不淫 不妬忌. 不盜竊 少靜訟. 其犯法 輕者沒其妻子 重者滅其門戶. 及宗族尊卑 各有差序 足相臣服.”

156) 金斗喆, 2003 <앞 논문>

157) 앞의 주석 116 참조

權이 가야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V. 4世紀 東아시아 情勢와 韓日關係

1. 中國의 情勢

4세기는 동아시아에서 중국 漢族 중심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동북아시아 여러 종족의 운동력이 확산되는 시기였다. 그 운동력이 균형을 이루어 안정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혼란이 뒤따랐으며, 각국의 상호관계는 국제적인 力學構圖에 따라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한, 중, 일 지역 각 세력들의 정세를 차례로 살펴보고 그에 기반을 두고 4세기의 한일관계를 개관해 보고자 한다.

中國에서는 291년 西晉의 洛陽에서 8왕의 난이 시작된 이후, 북방의 匈奴와 鮮卑가 여러 가지 계기로 인하여 長城 안으로 混入되어 들어오고 關中의 氏族과 羌族의 독립이 잇따랐다. 그에 따라 西晉은 지배력이 급격히 약화되다가 멸망하고, 317년에 그 일족인 司馬睿가 揚子江 이남에 망명정권 東晉을 세웠다. 華北에서는 흉노족 劉淵이 303년에 漢(후의 前趙)을 건국하면서 혼란스러운 五胡十六國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후 羯族의 石勒이 319년에 後趙를 세우고 세력을 키우더니 329년에 前趙를 멸망시키고 화북 일대를 장악하였다.

遼東에서는 慕容廆가 307년에 鮮卑大單于를 자칭하며 세력을 구축하여, 321년에는 襄平과 平郭을 거점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였고, 337년에는 燕王을 자칭할 정도로 강성해졌다. 그를 계승한 前燕의 慕容皝은 342년에 고구려 정벌에 성공한 후 中原으로 진출을 꾀하여 352년에는 後趙를 멸망시키고 화북 일대까지 장악하였다.¹⁵⁸⁾

한편 氏族의 苻健은 351년에 長安을 공략하여 前秦을 세운 후 前燕과 팽팽하게 대립하더니, 제3대 苻堅이 370년에 前燕을 멸망시키고 곧바로 요동과 요서 일대도 점령하였다. 前秦은 5호 16국의 국가 중에서 가장 안정된 치세를 유지하면서 揚子江 이북을 모두 평정하였으나, 이어서 383년에 江南마저 평정하려고 東晉을 공격하다가 肥水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멸망하였다. 그 후 화북은 後燕과 後秦을 비롯한 여러 소국가로 나뉘었으나, 鮮卑族 拓跋珪가 386년에 北魏를 세우고 395년에 후연을 크게 격파하

158) 여호규, 2000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對前燕關係를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36 (역사비평사, 서울)

는 등 승전을 거듭하여 439년 北涼의 병합을 끝으로 이들을 모두 통합하였다.¹⁵⁹⁾

2. 高句麗의 情勢

中國 東北部 및 韓半島地域에서는 무질서하던 列國이 상호 통합되어 高句麗·百濟·新羅·加耶의 4國이 鼎立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자리잡고 있던 高句麗는 3세기 후반 西川王 때에 이르러 각 지역에 온존하던 固有名部를 一掃함으로써 聯邦制的인 初期 古代國家를 벗어나 왕과 중앙귀족에 의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완비하였다.¹⁶⁰⁾ 4세기 초의 高句麗 美川王은 북중국 방면에서 5胡 16國이 발호하는 혼란기를 맞이하여 313년에 낙랑군을, 314년에 대방군을 멸망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高句麗의 팽창은 요동지방에 세력을 구축하던 前燕과의 대결을 불러, 319년과 320년에 東夷校尉·平州刺史 崔毳와 鮮卑 段部·宇文部 등과 연합하여 前燕을 공격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330년 이후로는 華北의 後趙와 화친을 맺고 前燕을 견제하다가 342년에 慕容皝의 공격을 받아 丸都城이 함락되고 王母 周氏와 남녀 5만이 포로로 잡혀가는 패배를 맛보았다.¹⁶¹⁾

高句麗 故國原王은 343년에 平壤 東黃城으로 移居하고 거의 30년에 걸쳐 이 지역에 대한 지배 체제 정비에 힘을 쏟았으며, 그동안 前燕은 中原 경영에 몰두하느라 高句麗와 군사적 충돌 없이 小康狀態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高句麗는 곧이어 남쪽에서 강국으로 성장한 百濟와 黃海道 지역을 사이에 놓고 대결하게 되어, 369년에는 高句麗 원왕이 군사 2만으로 백제를 정벌하다가 황해도 雉壤에서 패배하였고, 371년에는 백제 군사 3만을 이끈 近肖古王의 공격을 받아 平壤城에서 戰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¹⁶²⁾

거듭되는 외환 속에 高句麗는 주변 국가에 대한 거시적 외교와 안정된 지배질서

159) 孔錫龜, 198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書景文化社, 서울) 41~53

160) 盧泰敦, 1999 《高句麗사 연구》(사계절, 서울) 167~168

余昊奎, 2000 <高句麗 초기 정치체제의 성격과 성립기반> 《韓國古代史研究》 17 (韓國古代史學會) 157

金泰植, 2003 <初期 古代國家論> 《강좌 한국고대사》 제2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서울) 44~47

林起煥, 2004 《高句麗 정치사 연구》(한나래, 서울) 104~105

161)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12년조

162) 《위 책》 故國原王 39년, 41년조

창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그리하여 제17대 小獸林王은 前秦王 苻堅과 교류하여 불교를 받아들이고 太學을 세우고 373년에 律令을 반포함으로써 성숙한 고대국가 체제를 완성하였다. 그를 이은 故國壤王은 後燕과 대결하면서 한편으로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 修好하였다. 이 때 고구려가 신라를 지원하면서 그 왕족 實璽을 인질로 받은 것은,¹⁶³⁾ 대대적인 백제 정벌을 앞두고 신라가 백제와 연결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외교 전략이었다. 이러한 對內外的인 整備에 힘입어 고구려는 391년에 廣開土王이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後燕 및 百濟에게 공세를 취하였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396년까지 漢江以北地域을 점령하였으며,¹⁶⁴⁾ 서쪽으로는 402년까지 遼東의 주요 거점을 취득하고 後燕과 攻防을 거듭하다가¹⁶⁵⁾ 407년 馮跋의 쿠데타로 慕容王室이 무너짐으로써 遼河 일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3. 百濟의 情勢

한강유역 백제의 정세는 어떠하였을까? 《三國史記》 百濟本紀에 의하면 古爾王 27년(260)조에 6佐平 및 16官等制 등의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완비했다고 나오나, 이는 후세 백제인들의 고이왕 중시 관념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다.¹⁶⁶⁾ 이 시기 백제의 발전 정도는 좀더 낮추어 보아야 할 것이다. 유적 분포를 살펴보면, 3세기 후반에 백제의 王城인 서울 江東區의 夢村土城과 風納土城이 축조되었으며,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전반의 시기에 백제 강역이 충남 이북까지 설정되고 그 지역의 일부 주요 세력들에게 백제의 威勢品이 건네진 것을 알 수 있다.¹⁶⁷⁾ 그렇다면 3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고이왕 후기에 백제는 漢郡縣의 간섭과 馬韓小國聯盟體의 테두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部體制를 시행하는 初期 古代國家로 성장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¹⁶⁸⁾

163) 《위 책》 故國壤王 8년조

164) 《위 책》 廣開土王 원년, 2년, 3년, 4년조 및 《廣開土王陵碑文》 永樂 6년조

165)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 9년 2월, 11년, 13년, 14년, 15년조.

166)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서울) 217

167) 權五榮, 1988 <4세기 百濟의 地方支配方式 一例> 《韓國史論》 18 (서울대 國史學科, 서울) 23~27

朴淳發, 1997 <漢城百濟의 中央과 地方> 《백제의 중앙과 지방》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儒城) 151; 2001 《漢城百濟의 誕生》 (서경문화사, 서울) 219~230

168) 盧泰敦, 1975 <三國時代의 <部> 에 關한 研究 -成立과 構造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2 (서울대학교 國史學科, 서울) 14

盧重國, 1988 《앞 책》 98

그 후 백제는 286년에 고구려에 대항하여 대방을 구원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中國 郡縣과 적대관계를 유지하여 樂浪에 의하여 298년과 304년에 責稽王과 汾西王이 살해되기도 하였다. 백제는 그 후 한동안 외부 문제로 인한 王統의 혼란을 겪은 후,¹⁶⁹⁾ 346년에 近肖古王이 왕위에 오르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313년과 314년에 낙랑군과 대방군이 고구려에게 멸망되고 거기서 높은 문화를 지닌 유민들이 백제에 편입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근초고왕은 369년과 371년의 對 고구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372년에는 東晉에 사신을 파견하여 鎮東將軍 領樂浪太守를 책봉 받고, 이를 전후하여 博士 高興에게 國史인 《書記》를 편찬케 하였다.¹⁷⁰⁾ 얼마 후 枕流王 원년 및 2년(385)에 백제 왕실이 불교를 公認하였다는 것으로¹⁷¹⁾ 보아, 그를 전후한 시기에 고대국가 체제가 완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고학적으로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후반의 사이에 서울 石村洞 고분군이 정비되고 지방의 주요 고분군들이 사라지는 현상은,¹⁷²⁾ 지방 세력가들이 몰락하고 중앙 집권화가 비약적으로 강화된 면모를 반영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4세기 후반의 30여 년에 걸쳐 옛 대방지역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지나간 쟁탈전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백제로 볼 때는 近肖古王, 近仇首王, 辰斯王, 阿莘王에 걸치는 기간이었고, 고구려로 볼 때는 故國原王, 小獸林王, 故國壤王, 廣開土王에 걸치는 기간이었으며, 전투가 일어났던 주요 지역은 雉壤(황해도 延白郡 白川邑), 溟河(예성강) 강변, 平壤城, 水谷城(황해도 新溪郡 多栗面 삼미리), 都坤城, 石峴等 10여 성, 關彌城, 靑木嶺 등이었다.¹⁷³⁾ 즉 369년부터

金泰植, 2003 <初期 古代國家論> 《강좌 한국고대사》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서울) 50

169) 古爾系가 왕위에 나아간 이후, 적극적인 對郡縣 자세는 백제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백제의 국제적 위치를 고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쇠퇴의 길을 걷고 있던 郡縣의 마지막 발악으로서의 對百濟 견제로 말미암아 逆으로 古爾系의 쇠퇴를 촉진하였으며, 그 후 肖古系 比流王과 古爾系 契王의 왕위계승 분쟁이 있었다. 盧重國 《앞 책》 123~129

170) 《위 책》 114

171)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枕流王 即位年, 2年 2月條 盧重國 《앞 책》 115

172) 朴淳發, 1997 <앞 논문> 151

173) 《三國史記》 권24·25 百濟本紀를 통해 볼 때, 近肖古王 24년(369)에 고구려 故國原王이 2만군으로 雉壤에 내려오자 백제는 이를 격파하였으며, 同 26년(371)에 溟河 강변에서 백제가 고구려군을 급습하고, 더 나아가 정병 3만으로 平壤城까지 공격하여 故國原王을 사망케 하고 돌아왔는데, 同 30년(375)에는 고구려가 水谷城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近仇首王 2년(376)에 고구려가 백제 북변을 침공하였고, 同 3년(377) 10월에 백제가 3만

399년까지의 30년간에 걸쳐, 황해도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전쟁만 해도 10여 차례가 일어났던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쟁탈전은 단순한 영역 다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대국가 운영에 필요한 고급 문화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기도 하였다. 옛 樂浪郡과 帶方郡 지역은 起源上으로는 古朝鮮의 유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나, 後漢 초기 이후 漢化가 급속히 진행되어 당대의 中原文化를 사차 없이 수용해 왔던 귀족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¹⁷⁴⁾ 그래서 고구려는 이 지역을 무리하게 직접 통치하기보다 4세기 중엽부터 5세기 초에 걸쳐 平東將軍·樂浪相 冬壽, 帶方太守 張撫夷, 幽州刺史 鎮 등의 중국 망명객을 대표자로 내세워 그들의 幕府 조직을 통해 간접 통치하였다.¹⁷⁵⁾ 백제가 빼앗으려고 한 것도, 고구려가 막으려고 한 것도, 바로 그들의 선진 문화와 기술 인력이었다. 4세기 후반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교섭 및 전쟁의 이면에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옛 대방지역의 영역과 문화 인력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基調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그 당시 고대국가 백제의 남쪽 경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사는 《日本書紀》 神功 49년조 기사밖에 없다. 앞의 제 I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서 왜군이 경남이나 전남지역을 평정하여 백제에게 주었다는 것은, 왜와 백제가 그 지역 세력들의 중개 아래 교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⁶⁾ 다만 여기서 백제에게 향

군으로 平壤城을 침공하였으며, 11월에는 고구려가 침략해 왔다. 辰斯王 3년(387)에는 말갈과 關彌嶺에서 싸웠고, 同 5년(389)에는 고구려의 남변을 침공하였으며, 6년(390)에는 고구려 都坤城을 쳐서 함락시켰으나, 同 8년(392)에는 고구려 廣開土王이 4만군으로 石峴等 10여 성을 함락시켰고 關彌城도 함락시켰다. 阿莘王 2년(393)에는 1만군을 보내 關彌城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였고, 同 3년(394)에는 고구려와 水谷城에서 싸워 패하였으며, 4년(395)에 두 번에 걸쳐 溟水 강변과 靑木嶺까지 침공하였다가 실패하였으며, 同 7년 및 8년(399)에도 두 차례에 걸쳐 고구려 정벌을 도모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廣開土王陵碑文에 의하면, 고구려가 永樂 6년(396)에 백제를 쳐서 백제의 58城 700村을 빼앗고 백제왕의 동생과 大臣 10인을 잡아 돌아왔다고 하였다.

174) 尹龍九, 1989 <樂浪前期 郡縣支配勢力的 種族系統과 性格> 《歷史學報》 126 (歷史學會, 서울) 140

175) 林起煥, 1995 <4세기 고구려의 樂浪·帶方地域 境域> 《歷史學報》 147 (歷史學會, 서울) 42

176) 金泰植, 1997 <百濟의 加耶地域 關係史: 交渉과 征服> 《백제의 중앙과 지방》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儒城) 48~51

《三國史記》에 369년 백제의 북방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한 기록은 있어도 남방 정벌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이는 백제가 남쪽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특기할 만큼 본격적인 군사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복하였다는 4읍은 실제로 백제의 영역에 포함된 것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比利(군산시 회현면), 辟中·辟支山(김제시), 古沙山(정읍시 고부면) 등의 지명으로 보아 전라북도 서쪽 방면까지 미쳤다.¹⁷⁷⁾ 또한 백제는 枕彌多禮 또는 新彌國으로 나타나는 전남 해안의 海南·康津 방면 세력의 대외교섭권을 박탈하고 이를 대신할 만한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며,¹⁷⁸⁾ 해안에서 벗어난 靈巖郡 始終面이나 羅州郡 潘南面 등의 영산강 유역 세력에는 무력적인 제재나 개편 없이 貢納支配를 하는데 그쳤다.¹⁷⁹⁾

이처럼 백제는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때 중앙집권화에 성공하고 옛 帶方地域을 차지하였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구려 광개토왕의 군대로부터 391년부터 396년 사이에 공격을 받아 漢江以北 지역을 상실하는 위기를 겪었다. 그리하여 백제는 397년에 태자 腆支를 倭에 볼모로 보냈으니, 이는 援軍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任那加羅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백제가 4세기 말 고구려와의 전쟁에 任那加羅와 倭를 끌어들이던 조치는, 西晉이 3세기 말 4세기 초의 극심한 내란 중에 병력 보급을 위하여 五胡를 끌어들이던 것과 마찬가지로의 행위였다.

4. 新羅의 情勢

신라는 한반도 내에서 발전의 속도가 늦어 3세기까지 12국으로 구성된 辰韓小國聯盟體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경주지역에서는 3세기 후반에 細長方形 平面의 慶州型 木槨墓¹⁸⁰⁾ 또는 積石木槨墓라고 부르는 새로운 형식의 묘제가 발생하여 慶山, 蔚山, 浦項 등의 慶尙東部 지역으로 확산되어갔다.¹⁸¹⁾ 그 시기 경주지역의 분묘 유적에서

177) <위 논문> 51

178) 權五榮, 1999 《북암리고분군》(전남대박물관, 光州) 310

179) 문안식·이대석, 2004 《한국고대의 지방사회 -영산강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혜안, 서울) 107

영산강 유역에서 규모가 매우 큰 甕棺墓의 경우 墳丘의 크기로 미루어 볼 때 被葬者의 권력집중도가 매우 크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장품이 매우 빈약한 것은, 이 지역 생산물의 상당수가 貢物의 형태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李賢惠, 2000 <4~5세기 영산강 유역 토착세력의 성격> 《歷史學報》 166, 30

180) 申敬澈, 1995 <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 《釜大史學》 19 (釜山大學校, 釜山)

181)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一志社, 서울)

金大煥, 2001 <嶺南地方 積石木槨墓의 時空의 變遷> 《嶺南考古學》 29 (嶺南考古學會, 大邱) 83~85

대단한 富나 힘을 느낄 수는 없지만, 경상 동부지역에서 경주 세력의 중심적 위치를 확인할 수는 있다.

《晉書》辰韓傳에 의하면 그 왕이 281년, 282년, 286년의 3차례에 걸쳐 西晉에 조공하였으며,¹⁸²⁾ 《晉書》帝紀 해당년도의 기사에는 辰韓이라는 이름이 없이 東夷 10국, 20국, 5국, 11국 등으로 나타난다. 이 기록에 문제가 없다면¹⁸³⁾ 당시의 진한왕은 신라왕일 것이나, 그 조공은 교역 루트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만일 사실이라도 西晉 東夷校尉의 노력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그 직후에는 西晉 8왕의 난으로 인하여 교역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4세기 초 고구려의 樂浪·帶方 병합 이후에 신라가 대외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4세기 전반 내지는 그 이전으로 편년되는 경주 政來洞 고분과 月城路 29호분 출토 短甲이나, 월성로 5호분에서 출토된 고구려계 綠釉陶器 등은 신라와 고구려 등의 북방 세력과의 교섭이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¹⁸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라는 서서히 힘의 축적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와 신라의 연결이 적극적으로 모색된 것은 4세기 후반이었고, 이는 백제와의 대결에서 패하여 남방 진출 또는 百濟에의 보복을 모색하던 고구려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신라도 訖解尼師今을 끝으로 昔氏王統이 단절되고 356년에 奈勿尼師今이 왕위에 오른 후 외교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다. 377년에 신라가 前秦에 사신을 파견할 때 고구려의 사신과 동행했다든가,¹⁸⁵⁾ 381년에 신라가 고구려를 통해 衛頭를 전진에 파견했다든가,¹⁸⁶⁾ 고구려와의 우호의 대가로 實聖을 볼모로 보냈다든가¹⁸⁷⁾ 하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이는 신라로서는 국가 발전에 대한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400년에 고구려의 南征이 있을 후, 신라는 卜好 등의 왕족을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기도 하고,¹⁸⁸⁾ 또는 고구려가 신라의 왕위 계승에 개입하고¹⁸⁹⁾ 고구려군이

182) 《晉書》卷97 列傳第67 辰韓條 “武帝太康元年 其王遣使獻方物. 二年復來朝貢. 七年又來.”

183) 《晉書》辰韓傳은 《三國志》韓傳의 辰弁韓條를 간략하게 축약한 형태를 띠면서도 弁辰 12국이 모두 辰韓에 속했다고 하여, 사료상의 부정확한 문제를 남기고 있다.

184) 李賢惠, 1988 <4세기 가야사회의 교역체계의 변천> 《한국고대사연구》 1 (한국고대사연구회)

185) 《資治通鑑》 권104 晉紀 太元 2년조

186) 《三國史記》 권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26년(381)조

187) 《위 책》 奈勿尼師今 37년(392)조

188) 《위 책》 實聖尼師今 11년(412)조

189) 《위 책》 奈勿尼師今 46년(401)조 및 訖祗麻立干 원년(406)조

신라 영토 내에 주둔하기도 할 정도로 위태로웠다. 한편 신라는 그로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 성장하기도 하고, 혹은 그 힘을 빌어 강적인 任那加羅를 물리치고 낙동강 東岸의 유일한 覇者로 대두하기도 하였다. 결국 신라는 4세기 후반 奈勿尼師今 때 고구려의 지원을 받아 초기 고대국가를 이룩할 단서를 잡았으나 고구려의 간섭 속에 이루지 못하고, 5세기 전반 訥祗麻立干 때에 와서 단위 정치체인 6부를 왕권에 종속적으로 연합하여 초기 고대국가를 형성하였다.¹⁹⁰⁾

5. 加耶의 情勢

가야도 신라와 마찬가지로 3세기까지 12국으로 구성된 弁韓小國聯盟體를 이루고 있었다. 변한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의 변진 12국은 명분상 辰王에 소속되었지만, 실제로는 狗邪國과 安邪國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정치적으로 辰韓과 구분되면서, 馬韓, 濊, 倭, 및 樂浪郡, 帶方郡과 교역하는 등 독자적인 행위를 하였다. 그래서 변한은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三韓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었다. 다만 2~4세기의 유물과 유적이 咸安보다는 金海지방에서 훨씬 더 풍부하게 출토된 점으로 보아, 安邪國보다는 狗邪國이 더 우월하였다.¹⁹¹⁾

그런데 3세기 후반에 김해지방의 세력 중심은 대성동 고분군 축조세력이었고, 廣幅形 平面의 金海型 木槨墓¹⁹²⁾라고 부르는 새로운 형식의 묘제가 발생하였으며, 여기서는 몇 가지 새로운 문물의 요소가 나타났다. 즉 ①厚葬 ②陶質土器 ③殉葬 ④金工品 ⑤銅鏡 ⑥墓制 분화 및 선행분묘 파괴 ⑦鐵製甲冑와 騎乘用馬具의 등장 등 일곱 가지의 북방문화 요소가 김해 대성동 29호분으로 대표되는 시기에 김해지방에 한꺼번에 나타났다.¹⁹³⁾

가야지역에 일어난 큰 변화는 3세기 말, 4세기 초 동북아시아 세계에 전해진 외부 충격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에 틀림없다. 북방적 요소는 김해지방의 가야국이 西北韓 지역과 원활한 교역 활동을 하고 있던 2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4세기에

190) 金泰植, 2003 <初期 古代國家論> 《강좌 한국고대사》 제2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서울) 62~63

191) 金泰植,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제2권 (푸른역사, 서울) 21

192) 申敬澈, 1995 <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 《釜山史學》 19 (釜山大學校, 釜山)

193) 申敬澈, 2000 <금관가야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해안, 서울) 59

들어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¹⁹⁴⁾

《三國史記》 신라본기의 초기 기록¹⁹⁵⁾에 나오는 것처럼, 3세기 무렵의 가야국은 낙동강 유역의 대표로서 신라와 전쟁을 벌였다.¹⁹⁶⁾ 그 주체 세력의 분묘였다고 보이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2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까지의 여러 분묘가 발굴되었으나,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은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말에 이르는 木槨墓들이다. 그리고 거기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기본적으로 良洞里 고분군의 것과 동일하고, 2세기 후반부터 大成洞에 유적이 있었다고 해도 3세기 후반 이후의 발전을 자체적인 것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볼 때, 1세기 이래 김해 가야국의 중심인 양동리 집단이 2세기 후반 이후 신라와의 대결이나 金海灣 海域의 감시 및 통제 등을 위하여 대성동 집단을 지원하다가, 3세기 후반의 시기에 정치권력이 크게 강화되어 광역의 방어체제를 구축하고¹⁹⁷⁾ 부산 복천동 집단을 종속적으로 연합시키고 그와의 협조를 보다 긴밀하게 하기 위하여 主力이 대성동 방면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추정된다.¹⁹⁸⁾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가야국의 주변 세력 통제를 통한 중앙집권 능력 강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가야국이 낙동강 유역에서 가장 강한 지배자로 대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고구려가 4세기 초에 낙랑군과 대방군을 병합한 것은, 한반도 남부에서 낙랑·대방과의 원거리 무역을 통해 발전하던 김해 가야국의 영도력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가야연맹 내에 내분이 일어나 가야연맹은 咸安 安羅國 중심의 서부지역과 金海 加耶國 중심의 동부지역으로 분열되었다.¹⁹⁹⁾ 4세기의 古式 陶質 無蓋高杯가 분화하여, 筒形高杯는 주로 마산 서쪽에서 진주까지 나타나고, 外反口緣 無透窓高杯가 주로 창원 동쪽에서 김해·부산 지방까지 나타나는 것은 그 분열

194) 宋桂鉉, 2000 <토론 요지: 금관가야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해안, 서울) 85~87

195)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脫解尼師今 21년, 婆娑尼師今 6년, 15년, 17년, 18년, 27년, 祇摩尼師今 4년, 5년조.

196) 金泰植,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권 (푸른역사, 서울) 129

197) 김해 退來里 고분군과 禮安里 고분군 등이 3세기 후반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김해만 해역의 읍락들뿐만 아니라 신라, 가야 각지로 통하는 육로교통의 중간 지점이나 김해만의 배후 분지에 위치하는 세력들이 이 시기에 김해의 가야국 세력권내로 새로이 편입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李賢惠, 1996 <金海地域의 古代 聚落과 城>, 《韓國古代史論叢》 8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서울) 180

198) 金泰植·宋桂鉉, 2003 《韓國의 騎馬民族論》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果川) 192

199) 金泰植, 1994 <咸安 安羅國의 成長과 變遷> 《韓國史研究》 86 (한국사연구회) 60

양상을 반영한다.²⁰⁰⁾ 낙랑·대방을 통한 일방적인 문화 기준이 고구려의 팽창으로 인하여 사라지자, 한반도 남부 각지의 세력들은 이리저리 연합하여 자생적으로 통용되는 국지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었고, 浦上八國의 亂과 그로 인한 가야연맹의 동서 분열은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김해 중심의 동부 가야는 帶方-加耶-倭의 교역로에서 帶方이 사라진 상태에서 倭와의 교역에 더욱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4세기 후반에 속하는 김해 대성동 2호분, 13호분, 23호분에서 일본계 威勢品인 바람개비형 청동기[巴形銅器]가 나오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시기에 백제의 近肖古王이 가야와 교류를 시작하였으며,²⁰¹⁾ 백제의 남방 통교는 369년부터 이어지는 고구려와의 전투를 위한 것이었다.

한편 앞의 제 II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神功紀>를 통해서 가야와 관련하여 4세기 후반의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昌原의 彌烏邪馬國(=卓淳國)을 중개 기지로 하여 백제와 왜가 연결되었다는 것뿐이다. 가야의 중개 능력은 富와 기술과 무력을 모두 갖춘 데서 나오는 것이지, 단순히 백제와 왜 사이의 교역을 위한 지리적 편의성에 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김해 가야국의 우월성은 철 생산과 철기 제작 기술과 무력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김해 대성동 2호분²⁰²⁾에서 출토한 다량의 덩이쇠[鐵錠]와 종장판 정결 판 갑옷[縱長板釘結板甲] 등의 유물은 이를 보여준다. 당시에 김해, 부산 등의 가야 고분에서 기마 武裝과 관련된 유물이 다량 나오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전형적인 기마 무장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하나, 중장기병술이 조직적이며 체계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야에 기병이 존재하고 가야의 일부 엘리트계층이 중장 기마 전술을 수용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²⁰³⁾ 이러한 점은 가야가 백제를 통하여 옛 대방 지역, 즉 황해도 방면과 교역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어서 그 지역의 고구려-백제 간 전쟁의 여파로 발생한 유이민을 수용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상정할 수 있다.²⁰⁴⁾

200) 安在喆·宋桂鉉, 1986 <古式陶質土器에 관한 약간의 고찰 -義昌 大坪里出土品을 통하여-> 《嶺南考古學》 1 (嶺南考古學會, 大邱) 50~53

趙榮濟, 1986 <西部慶南 爐形土器에 대한 一考察> 《慶尙史學》 2 (慶尙大學校, 晉州) 24

朴升圭, 1993 <慶南 西南部地域 陶質土器에 대한 研究> 《慶尙史學》 9 (慶尙大學校, 晉州) 4~5

金泰植,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권 (푸른역사, 서울) 134~137

201) 《日本書紀》 卷10 欽明天皇 2年 夏4月條 “聖明王曰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之世 安羅加羅卓淳阜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 冀可恒隆。”

202)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大成洞古墳群 I》 (釜山) 100~112

203) 李蘭暎·金斗喆, 1999 《韓國의 馬具》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果川) 219~220

결국 가야연맹은 4세기 후반에 다시 김해 가야국을 중심으로 일원적으로 통합되어, 백제·왜 사이의 중개 기지로서 안정적인 교역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즉 廣開土王陵碑文이나 《三國史記》 強首傳에 보이는 '任那加羅(任那加良)'라는 명칭은, 김해 가야국을 중심으로 한 前期 加耶聯盟의 4세기 후반 당시의 이름이며 존재 방식이었고, 그 명칭의 기원은 昌原의 任那國과 金海의 加耶國의 合稱에 있었다.²⁰⁵⁾ 그 시기에 왜는 고대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가야의 鐵을 필요로 하였고 가야는 낙동강 유역을 둘러싼 신라와의 쟁패 과정에서 왜의 인력, 특히 군대가 필요하였으므로, 이들 사이에는 한동안 긴밀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6. 倭國의 情勢

4세기 일본열도의 정세는 어떠했을까? 일본열도는 266년부터 413년까지 중국 사서에 아무런 기록도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九州부터 瀬戶內海를 거쳐 畿內까지 前方後圓墳이라는 묘제가 출현하였다. 앞서 분석한 <神功紀>를 비롯한 《日本書紀》는 사료로서 이용하기 어려우며, 문헌사료로서 1급은 廣開土王陵碑文 뿐이나, 그것도 시기가 4세기 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본열도 내의 형세를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4세기의 일본열도의 정세는 고고학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고고학적 시대구분에 의해서 볼 때, 3세기 후반부터 7세기 말까지를 古墳時代라고 하며, 4세기는 대부분 古墳時代 前期에 해당한다. 근래의 정리된 견해에 따르면, 箸墓古墳은 최초의 前方後圓墳으로서 3세기 중엽 卑彌乎의 죽음 직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 일본열도 각지의 首長들은 그들이 구성하는 정치 연합의 구성원이 죽었을 때 공통적인 장송의례를 행하고 함께 무덤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초기 前方後圓墳의 존재양상으로 볼 때, 이러한 정치 연합은 畿內의 大和政權을 중핵으로 하고 瀬戶內海 연안 각지와 북부 九州를 포함하였고, 이들은 鐵鎚으로 대표되는 한반도의 鐵資源과 각종 선진문물의 交易路를 확보하기 위해 결속된 것이라고 하였다.²⁰⁶⁾

前方後圓墳이 전국적으로 성행했던 古墳時代의 사회 상태에 대해서는 初期國家로 보는 견해와 首長聯合 또는 首長同盟으로 보는 견해가 대표적이다.

204) 金泰植·宋桂鉉, 2003 《韓國의 騎馬民族論》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果川) 193~196

205) 金泰植, 1994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韓國古代史論叢》 6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서울) 86

206) 白石太一郎, 1999 《古墳とヤマト政權》 (文春新書036)

初期國家論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前方後圓墳이 4세기 이래 일본열도 전역에 분포하는 것을 놓고, 일본 古墳時代의 성격을 chiefdom과 국가 사이의 과도적 단계로서 初期國家라고 논하며, 그 사회의 속성은 강제력을 가지는 중앙정부의 존재와 공동체 안팎의 공납관계 등으로 규정하였다.²⁰⁷⁾ 그러면서도 前方後圓墳 被葬者別로 체현하는 지역 권력과畿內的 정치센터가 병존하되, 그 신분제는 출신과 실력에 기초하여 상호 승인하는 관계였다고 보았다.²⁰⁸⁾ 혹은 4세기 후반의 墳丘와 埴輪에서 보이는 분묘 제사와 계승의례는 혈연관계를 떠난 세속 권력의 출현과 지역을 초월하는 국가의 성립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²⁰⁹⁾

首長聯合(同盟)論에서는 5세기 고분의 墓制와 副葬品 등에서 지역의 大首長墳은 大和의 大王墳과 비슷하나, 그 외 소형 方墳에서는 在地的 색채만 있으므로, 이 시기 倭王權의 지방지배는 吉備, 出雲, 筑紫와 같은 지역의 最高首長을 서열화하는 것에 머물고 각각의 하위 수장은 해당 지역의 大首長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고 보았다.²¹⁰⁾ 즉 古墳時代에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관료기구가 발달되지 않았고 중앙집권적인 정부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國家 단계로 볼 수 없으며, 그 시대의 수장들은 다양한 chiefdom사회와 部族社會의 단순한 집합체로서 각 지역의 수장들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거기 참여한 각 사회는 상당히 자율적이었다는 것이다.²¹¹⁾

위의 견해들을 한국사와 비교해 볼 때, 初期國家는 小國 규모의 여러 단위 정치체들이 대외적인 小國名을 포기하고 대외교섭 창구를 일원화하여, 대외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존재를 중심으로 하나의 국가로 기능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지역별 독립성이 인정되는 聯邦制 조직(部體制)을 갖추고 있는 初期 古代國家²¹²⁾와 거의 유사하다. 반면에 首長聯合은 개별적인 국명을 가지고 있는 小國 규모의 여러 단위 정치체들이 세력 크기에 따라 序列化되어, 일상적인 교역과 같은 대외관계는 단독 소국별로 행하

207) 都出比呂志, 1991 <日本古代의 國家形成論序說 -前方後圓墳體制의 提唱-> 《日本史研究》 343; 1996 <國家形成의 諸段階> 《歷史評論》 551

208) 都出比呂志, 1991 <위 논문>

209) 田中琢, 1991 <倭人爭亂> 《日本の歴史》 2 (集英社, 東京)

210) 和田晴吾, 1992 <群集墳と終末期古墳> 《新版日本の古代》 5 (角川書店, 東京)

211) 佐佐木憲一, 2000 <日本考古學에 있어서 古代國家論 -理論研究의 現狀-> 《東亞細亞의 國家形成》 제10회 百濟研究國際學術會議 발표요지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儒城)

212) 盧泰敦, 2000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 《韓國古代史研究》 17 (韓國古代史學會 編, 書景文化社, 서울) 25~26

金泰植, 2003 <初期 古代國家論> 《강좌 한국고대사》 제2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서울) 29

고, 특별한 대규모의 교역이나 전쟁과 같이 큰 규모로의 행동이 필요할 때에만 맹주국이 각 소국들의 양해를 얻어 통솔하는 小國聯盟體²¹³⁾를 가리킨다. 그런데 古墳時代가 3~7세기를 관통하는 긴 시간이라고 볼 때, 이를 모두 하나의 사회 성격으로 결정짓기는 어렵고, 그 사이에도 상당한 사회 성격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문헌사학의 首長制社會論에서는 倭王 武 上表文과 刀劍銘을 근거로 삼아 5세기 후반 雄略期를 고대국가 성립의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였다. 즉 稻荷山古墳 出土 鐵劍의 金象嵌銘文과 江田 船山古墳 出土 鐵劍의 銀象嵌銘文에 나오는 杖刀人과 典曹人은 關東과 九州北部의 地域首長이었고 倭의 雄略은 이들의 上番奉事를 받는 最高首長으로서, 雄略이 지방 세력을 제압하여 畿內氏族聯合政權에서 軍事專制王權으로 비약했다고 평가하였다.²¹⁴⁾ 혹은 倭王 武가 자칭했던 開府儀同三司는 군사적 지배체제의 확립을 위한 府官制의 실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고,²¹⁵⁾ 또 이에 근거를 두고 5~6세기에는 統一首長國(Complex Chiefdom)이 형성되어 倭王權 중심의 序列社會가 형성되었다고 하였다.²¹⁶⁾

위에서 埼玉縣 稻荷山古墳이나 熊本縣 江田 船山古墳에서 출토된 鐵劍 명문의 존재와 관련하여 5세기 후반에는 畿內지역의 세력이 九州지역에서도 인정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들은 아직 지방에서 대대로 권력을 자기 자손에게 세습하는 독립적 존재였다. 게다가 6세기 전반에는 九州지역에서 磐井의 亂이라는 거대한 반란이 있었고,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고 중앙에 세금을 납부하는 미야케[屯倉]가 그 이후에야 각 지방에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로 보아, 그보다 200년 앞선 4세기 시점에 大和朝廷의 존재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일본 古墳時代를 크게 나누어, 그 전기와 중기 전반에 해당하는 3세기 후반부터 5세기 전반까지는 小國聯盟體(首長聯合), 그 중기 후반과 후기에 해당하는 5세기 후반부터 7세기 말까지는 初期 古代國家(初期國家)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4세기의 일본열도는 소국연맹체의 사회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연맹체는 주도 세력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 기원전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주로 북부 九州 세력이 철기 제작에 쓰이는 加耶의 板狀 鐵斧를 독점하였으나,²¹⁷⁾ 古墳時代 前期가 시작되는 3세기 후반에 畿内の 邪馬台國이

213) 金泰植, <위 논문> 29

214) 井上光貞, 1980 <雄略期における王權と東アジア> 《日本古代史講座》 4 (學生社, 東京)

215) 鈴木靖民, 1988 <武(雄略)の王權と東アジア> 《雄略天皇とその時代》 (吉川弘文館, 東京)

216) 鈴木靖民, 1990 <歴史學と民族學(文化人類學) - 日本古代史における首長制社會論の試み -> 《日本民俗研究大系》 10 (國學院大學, 東京)

畿内 각지와 瀬戸内海 연안 각지의 여러 세력을 결집하여 한반도 남부와 상호작용의 주체로 대두되었으며,²¹⁸⁾ 4세기 후반에는 河内の 古市·百舌鳥 古墳群을 축조한 신흥 세력이 加耶의 鐵의 交易體系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여 鐵製甲冑를 공급하는 새로운 威勢品 체제를 구축하여 정권을 잡았다.²¹⁹⁾

그러므로 4세기의 일본열도는 한반도의 鐵資源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畿内の 大和政權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 시기의 연맹체는 필수물자를 일본열도 바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느 세력이 그 교역로를 유지하는가가 중요하여 한반도 정세의 변동 및 그 필수물자 생산 세력과의 우호관계 여부에 따라 그 내부의 주체가 바뀌었다. 이는 畿内 세력의 중앙집권 정도가 약하고 王室이 불안정하여 내부적으로도 연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5세기 전반의 분구 길이 360m의 吉備 造山古墳이 畿内の 上石津 미산자이 古墳과 함께 同時代 최대의 고분이었다는 점이나,²²⁰⁾ 5세기 후반 내지 6세기 초의 九州 熊本縣 江田 船山古墳 被葬者が 畿内 뿐만 아니라 大加耶나 百濟와도 긴밀하게 교역하고 있었다든가, 6세기 초의 九州 福岡縣 岩戶山古墳이 畿内와 다른 독자적인 설계를 보여주는 점 등으로 보아, 吉備나 九州는 그때까지 大和政權에 종속적으로 연합된 部와 같은 성격보다는 序列이 상대적으로 下位에 있는 동맹자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4世紀의 韓日關係

위와 같이 볼 때, 4세기의 한일관계는 鐵과 先進文物의 수출을 매개로 하여 일본열도와 전통적으로 밀접하게 교류하던 金海 加耶國 중심의 前期 加耶小國聯盟體와, 鐵을 수입하기 위하여 한반도 남부의 가야와 독점적 우호관계를 원했던 畿内 大和國 중심 小國聯盟體와의 교류관계가 중심을 이룬다고 하겠다. 그러나 鐵은 가야지역에서 생산된다고 해도, 상당수의 선진문물은 중국 방면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야가 帶方 또

217) 武末純一, 2002 <日本の九州および近畿地域における韓國系遺物 -土器・鐵器生産關係を中心に-> 《古代 東亞細亞와 三韓・三國의 交渉》 (북천박물관, 부산) 88

218) 白石太一郎, 2002 <倭と加耶の交流の歴史的意義>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第五回國立歷史民俗博物館國際シンポジウム, 佐倉) 265~270

219) 田中晋作, 1990 <百舌鳥・古市古墳群の被葬者の性格について> 《古代學研究》 122 (古代學協會); 2000 <巴形銅器について> 《古代學研究》 151

220) 白石太一郎, 《앞 책》

는 百濟를 통하여 증개하는 것이므로, 그 교역관계는 동아시아 전반의 형세에 따라 연동되어 움직이는 측면이 컸다.

4세기 전반에는 중국 西晉의 혼란으로 인한 東部都尉의 몰락, 중국 동북부 및 한반도 북부 고구려의 樂浪·帶方郡 병합, 이에 따른 加耶聯盟의 東西 分裂 등으로 말미암아, 일원적인 문화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 시기에는 3세기에 성립했던 畿內 大和 중심의 聯盟體도 그다지 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각자 한반도 남부의 여러 세력들과 개별적인 교섭을 하였다.

鐵製板甲의 분포로 보아 4세기 전반의 국제교역 체계는 高句麗-新羅-加耶(부산·김해)-倭로 이어지는 것이었다고도 하고,²²¹⁾ 또 당시에 咸安 安羅國 양식의 繩蓆文兩耳附打捺壺의 類例가 對馬의 朝日山 고분, 島根縣 上長浜 陪塚, 大阪府 四條 유적 등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²²²⁾ 이는 東西로 구분된 前期 加耶聯盟이 각기 다른 경로로 일본열도와 교류하는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조류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4세기 중엽에 고구려가 前燕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고 주춤하는 사이에 近肖古王代의 백제가 대두하여, 한편으로는 중국 南朝의 東晉과의 무역로를 개척하고 한편으로는 가야와 연결되자, 가야연맹제국은 김해 加耶國을 중심으로 다시 통합되어 왜와의 교역을 주도하였다. 지금까지 발굴된 4세기 후반 가야지역의 유적·유물 중에 金海 大成洞 13號墳과 2號墳의 것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와 수준이 가장 우월한 것이며, 거기서 출토된 일부의 倭系 유물들은 왜와의 교류를 입증하고 있다.²²³⁾

여기서 주목되는 견해가 金海 大成洞 古墳群과 일본 河內地方 古墳群의 외래 유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바람개비형 청동기[巴形銅器]는 일본열도제로서 신흥 세력인 河內勢力과 가야국 중심세력간의 제휴를 나타내는 유물이며,²²⁴⁾ 원통형 청동기[筒形銅器]는 가야국의 威勢品 중 하나로서 가야국과 河內勢力과의 교섭관계를 나타내는 유물이라는 것이다.²²⁵⁾ 그리고 일본의 신흥 세력이 4세기 후반에 한반도와의 교섭

221) 李賢惠, 1988 <앞 논문> 175

222) 朴天秀, 2002 <考古資料를 통해 본 古代 韓半島와 日本列島の 相互作用> 《韓國古代史研究》 27 (韓國古代史學會) 59

223) 金泰植, 2002 《앞 책》 1권, 137~144

224) 福永伸哉, 1998 <對半島交渉から見た古墳時代倭政權の性格 -4~5世紀における日韓交渉の考古學的再檢討 -> 《青丘學術論集》 12 (財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井上主稅, 2003 <김해 및 부산지역 古墳 출토 倭系遺物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51 (韓國考古學會, 大邱) 128

225) 申敬澈, 1992 <金官加耶의 成立과 對外關係> 《伽耶와 東아시아》 (金海市 加耶史國際學術會議 發表要旨, 金海) 53; 1993 <加耶成立前後의 諸問題> 《伽耶と古代東アジア》 (新人物往來社, 東京) 144; 2004 <筒形銅器論> 《福岡大學考古學論集 -小田富士雄先生

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목적은 한반도의 鐵素材를 대량으로 입수하는 물량 작전에 의해 畿內 중앙정권 안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²²⁶⁾

즉 한일 양국에서 발견되는 바람개비형 청동기와 원통형 청동기의 분포 상태로 보아, 일본에서 새로이 등장한 威勢品 공급 체계는 金海를 중심으로 한 加耶圈과의 사이에 맺어진 것이고 이를 주도한 왜의 집단은 奈良 분지 동남부에 기반을 둔 세력이 아니라 새롭게 대두한 河內 세력이었다. 당시에 가야는 왜에게 物的 資源인 鐵鋌과 선진문물을 공급하였으며, 왜는 가야에게 그 대가로 人的 資源인 勞動力²²⁷⁾ 또는 軍事力²²⁸⁾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상호 교류를 주도하며 김해의 가야국과 河內 세력은 각자 가야연맹 또는 일본 서부연맹의 맹주국으로서 위치를 굳혀갔다.

이와 같이 加耶와 倭 사이의 긴밀한 우호관계에 바탕을 둔 문화 교류는 4세기 말에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가야를 지원하고 교류하던 백제가, 4세기 말에 옛 대방지역을 둘러싼 고구려와의 30년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패하게 되자, 가야와 왜 사이의 교역 형태를 주목하고 倭兵을 대거 동원하였던 데서 비롯되었다. 가야는 백제로부터 선진문물을 제공받는 입장에 있었고, 교역을 중시하는 가야연맹의 정치적 통합은 그에 의존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연장시키기 위해서 가야는 백제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다만 前述한 바와 같이, 당시에 왜군의 武裝體系는 重裝騎兵 위주의 高句麗軍²²⁹⁾은

退官記念-》(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事業會, 福岡) 699~700

田中晋作, 1998 <筒形銅器について> 《古代學研究》 151

鄭澄元·洪潛植, 2000 <筒形銅器研究> 《福岡大學綜合研究所報》 第240號 (綜合科學編 第3號, 福岡)

井上主稅 <위 논문> 121~122

但, 아래에 제시한 논문들과 같이 筒形銅器의 제작지를 일본열도로 보는 견해도 있다.

福永伸哉 <위 논문>

山田良三, 2000 <筒形銅器の再考察> 《橿原考古學研究所紀要 考古學論集》 第23冊 (奈良)

柳本照男, 2001 <金海大成洞古墳群出土の倭系遺物について> 《久保和士君追悼考古論集》

226) 福永伸哉 <앞 논문>

227) 申敬澈, 2000 <금관가야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서울) 73~77

228)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 《倭國と東アジア》 (鈴木靖民編, 吉川弘文館, 東京) 15

229) 余昊奎, 1999 <高句麗 中期的 武器體系와 兵種構成> 《韓國軍事史研究》 2호 (國防軍史研究所, 서울) 71~73

물론이고 마름모꼴 단면의 쇠투검창[斷面稜形鐵鏃]과 종장판 정결 판갑옷[縱長板釘結板甲] 위주의 가야군 무장체계²³⁰⁾에도 훨씬 못 미치는 短劍과 두께가 얇은 쇠휘살촉 위주의 것이었다.²³¹⁾ 그 결과 가야를 매개로 하여 동원된 왜군들은 무장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한반도 내에서 독자적인 행위를 하기 보다는 가야 또는 백제 군대의 하급 단위로 편제되어 활용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야는 왜군이 유효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즉 자신들을 도울 倭軍의 무력 강화를 위하여, 때로는 가야의 陶質土器와 鐵器 및 甲冑 관련 工人들을 왜국에 원조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미 4세기 후반에 重裝騎馬戰術까지 구사할 수 있었던 加耶의 軍事裝備 제조 기반은 왜국에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加耶는 왜의 군사력을 손쉽게 이용하려는 목적 아래 왜국에 工人을 파견하여 그 곳을 加耶의 전쟁 배후기지로 개발한 것이고, 일본 河內地域의 신흥세력은 가야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좋은 기회로 여겨 군사역량 강화 및 군대 파견에 힘을 썼다.

이처럼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倭軍은,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패권 쟁탈전 가운데 백제가 치명적인 수세에 몰리고, 그에 따라 각각의 동맹세력인 신라와 가야 사이의 대립도 격화되어 한반도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는 4세기 말 5세기 초에, 백제 및 가야에 의하여 백제 및 가야를 돕기 위하여 동원된 援軍이었다. 즉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전쟁이 심화된 가운데, 고구려와 신라가 동맹관계를 맺었고, 백제와 가야가 동맹관계를 맺었으며, 왜군은 가야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야 및 백제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고구려에게 크게 패배한 백제가 태자 腆支를 일본열도로 파견하여 왜국과의 좀더 긴밀한 동맹관계를 추구한 397년 이후로, 백제-가야-왜의 군사적 협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당시에 백제가 가야나 왜를 지원한 유물 증거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백제와 가야-왜의 관계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때문이 아닐까 한다. 반면에 백제의 동맹 세력인 가야는 그 대가로 왜국의 河內 정권을 지원하였고 그런 흔적은 유물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나타나나, 가야의 지원은 핵심 기술을 제외한 부분적인 것이었다.²³²⁾ 왜국은 鐵素材를 외부에 의존해야

230) 金斗喆, 2003 <무기·무구 및 마구를 통해 본 가야의 전쟁>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해안, 서울) 145

231) 松木武彦, 1999 <古墳時代の武裝と戰闘> 《戦いのシステムと對外戰略》(東洋書林, 東京)

232) 松木武彦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 古墳時代 武裝의 Ⅲ期(4세기 말~5세기 전엽)에는 攻撃具는 長刀나 長劍이 증가하여 短劍·短刀나 창[鉞]을 능가하고, 한반도계의 有頸劍촉이

했던 근본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고 대군을 일시에 동원할 만한 정치체제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야와 왜의 협력이 단기간에 큰 효과를 낼 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가야 자체의 전반적인 軍備나 문화 능력은 신라에 비하여 크게 손색이 없었으나, 그를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남하해 온 고구려의 대군에 비하면 역시 열세였던 것이다.

廣開土王陵碑文 永樂 10년(400) 조에 나오는 고구려의 倭賊 및 任那加羅 정벌, 永樂 14년(404)조에 나오는 帶方界의 倭寇 토벌은 그런 관계로 인하여 나타난 사건이다. 여기서 승리한 고구려는 未知의 세계에서 온 왜군 토벌에 대하여 과장되게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倭보다 가야에게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김해 가야국을 중심으로 한 前期 加耶聯盟은 큰 타격을 입고 해체되었으나,²³³⁾ 오히려 그 주변 일대와 일본열도에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쳤다. 즉 낙동강 하류 유역의 김해 가야국이 몰락하자, 가야의 전통적인 물자 교역로를 따라 낙동강 상류의 영남 내륙지방과 對馬島를 경유하는 일본열도 등으로 수많은 기술자들의 移民이 이어졌다. 특히 이는 須惠器, 鐵製甲冑, 馬具 제작을 비롯한 일본열도의 문화 발전에 하나의 큰 계기를 이루었다.²³⁴⁾ 5세기 후반에 高靈을 중심으로 한 後期 加耶聯盟이 대두하고 雄略期로 대표되는 일본의 聯邦制의 고대국가 체제가 성립되는 것은 그에 힘입은 바 크다.

VI. 맺음말

4세기의 한일관계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4세기 동아시아의 전반적 정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이해는 여러 문헌사료에 대한 실증적 이해와 고고학적 유물자료에 대한 종합적 분석 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숨에 보급하고 逆刺를 만드는 기법도 구사되며, 철제갑주의 型式이 一新하여 革綴의 帶金式 갑주가 등장하여, 刀劍·鎧·甲冑라고 하는 攻撃具·방어구의 전반에 걸쳐서 실용 무장이 혁신된다. 그러나 공격력이 높은 長頸式 쇠화살촉의 급속한 보급, 甲冑 제작의 釘結技法, 馬具 등은 5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나타나며, 마름모꼴 단면의 쇠투겁창은 끝내 보급되지 않았다. 松木武彦, 1999 <古墳時代の武裝と戦闘> 《戰いのシステムと對外戰略》(東洋書林, 東京)

233) 金泰植,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권 (푸른역사, 서울) 151~152

234) 申敬澈, 2000 <앞 논문> 78

지난날 이 문제에 대해서는 任那日本府說에 입각하여 4세기부터 한반도 남부는 일본열도의 왜국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가설이 있었고, 이는 《日本書紀》 神功皇后 관련 기사와 廣開土王陵碑文의 倭軍 관련 기사에 대한 피상적 이해로부터 비롯되었다. 근래에는 문헌 및 유물에 대한 이해의 심화에 힘입어 그림처럼 극단적인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지역에 대해서만은 왜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정도의 인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가야사 및 가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 동향을 종합하여, 잘못된 선입견을 제거하고 좀더 합리적으로 4세기의 한일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倭의 임나 정벌을 기록하고 있는 《日本書紀》 神功皇后 관련 기사에 대하여, 근래의 학자들은 그 기사 및 사실을 모두 부정하거나, 또는 그 주어를 백제로 바꾸어 이해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神功紀 49년조 기사에는 한반도 남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사실들이 언급되고 있으나, 그 사료의 신빙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불리 긍정하거나 주어를 바꾸어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므로 이 자료를 이용해서 369년에 왜 또는 백제가 군사 정벌을 단행하여 가야지역을 정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廣開土王陵碑文에는 한반도 남부 및 중부 지방에서 왜군이 활동한 흔적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辛卯年 기사와 같이 교란된 글자를 포함해 아직도 실증 문제가 남은 조항도 있으나, 그를 제외하고 보아도 광개토왕릉비문에는 고구려에 인접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왜군의 활동이 많이 나오고 또한 과장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관계로 인하여 나타난 어떤 성격의 존재들이었을까?

4세기 후반의 東아시아 정세에서 東晉과 前秦의 갈등도 있었으나, 한반도 관련 국제 정세의 기본은 高句麗와 百濟 兩大強國의 대결 구도였다. 그들은 4세기 후반에 帶方故地를 사이에 놓고 30여 년간 격렬한 전쟁을 치렀다. 그에 비하면 한반도 남부의 新羅와 加耶는 그에 부수적으로 연동되어 움직이는 측면이 강하였다.

한편 加耶와 倭는 2~3세기 이래 4세기까지 전통적으로 가야의 物的 資源과 왜의 人的 資源을 교환하는 긴밀한 교역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관계는 4세기 후반에 양 지역의 정세 변동, 즉 金海의 加耶國을 중심으로 한 가야연맹의 재통합과 일본열도畿内の 河内地域을 중심으로 한 신흥세력의 출현으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兩者의 교류관계는 전통적인 鐵素材와 威勢品 교역에 더하여, 가야의 軍需物資 수출 및

왜의 軍事力 동원 문제가 중요시되었다.

4세기 후반에 百濟는 고구려와의 대결을 치르는 과정에서 新羅를 견제하기 위하여 加耶를 지원하고, 加耶를 매개로 하여 倭와 연결되었다. 그런 중에 백제가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열세에 밀리자, 백제는 가야와 왜 사이의 전통적인 인적·물적 자원교역의 관행을 이용하여 倭軍을 끌어들이었다. 그 결과 倭는 兩者間の 필요에 의하여 동맹을 맺고 있었던 加耶를 위해 高句麗와 百濟 사이의 전쟁에 동원되어 인명 손실의 큰 對價를 치르고 문화적 이득을 취한 것이다.

그 시기를 전후하여 日本列島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게 되었다. 413년에 倭王이 東晉에 사신을 보낸 것을²³⁵⁾ 계기로 中國史書에 일본 관련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 후 5세기 후반까지 왜의 5왕이 南朝와의 朝貢關係를 유지하였다. 5세기 들어 일본의 河內地域에서 巨大政權이 대두한 것은 한반도에서 유입된 집단들이 통합된 것과 관련이 있으나, 그 통합의 계기나 과정은 분명치 않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은 4세기 말 5세기 초에 加耶地域으로부터 日本列島로 많은 人口가 流入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²³⁶⁾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4세기 말 또는 5세기 초에 金海 등의 洛東江 하류지역, 즉 金官加耶로부터 일본열도 각지로 馬具類와 金屬加工術, 陶質土器 등이 移民과 함께 전해졌는데, 금속가공술과 도질토기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工人이나 製作技法까지 전해졌다고 하였다.

金海 및 釜山 등과 같은 낙동강 하류지역은 前期 加耶聯盟의 중심 지역으로서 百濟 및 倭와 연결하여 국제관계에 휘말리면서 적극적으로 高句麗 및 新羅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패배 직후인 5세기 초에는 流移民들도 많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 시기는 金海 중심의 前期 加耶와 高靈 중심의 後期 加耶 사이의 轉換期에 해당한다. 가야의 流亡民들은 慶尙南·北道 內陸 山間地域으로 도피하기도 하였으나, 가까이 교

235) 《晉書》 권10 帝紀 10 安帝 義熙 9년(413) 是歲條

236) 江上波夫, 1984 <日本における國家の形成 -倭人の國から大和朝廷へ-> 《東洋研究》 72; 1992 《江上波夫の日本古代史 -騎馬民族說四十五年-》 (大巧社, 東京) 256~257

崔秉鉉, 1992 <考古學的으로 본 加耶와 日本의 關係> 《韓國史市民講座》 11 (一潮閣, 서울) 111~117

中村潤子, 1991 <騎馬民族說の考古學> 《考古學その見方と解釋》 (筑摩書房); 森浩一編, 1993 《馬の文化叢書 第一卷 古代 -埋もれた馬文化》 (馬事文化財團, 横浜) 483

崔鍾圭, 1990 <美術上으로 본 韓日關係 -陶質土器와 須惠器-> 《古代韓日文化交流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城南) 164~171

酒井清治, 2001 <倭における初期須惠器の系譜と渡來人> 《4~5世紀 東亞細亞 社會와 加耶》 (제7회 加耶史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김해) 99~101

申敬澈, 2000 <앞 논문> 78

류하던 日本列島로도 상당수 도피하였던 것이다.

이를 韓日間의 단순한 교역, 또는 日本에서의 주체적 문물 수용, 심지어 任那 經營의 결과에 따른 韓國·中國系 住民(渡來人, 歸化人)의 移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만일 그렇다면 騎馬民族의 征服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급격한 4~5세기 日本列島內 遺物相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5세기 이후 日本 고대 문화의 폭발적인 발전은 일본열도 주민들의 노력 및 그 문화의 내적 성장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도, 그 촉발은 본질적으로 高句麗 對 百濟의 대결이라는 한반도 정세에 연동되어 이루어진 加耶의 지원과 加耶地域의 상황 변동에 맞물려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文獻目錄】

4世紀 韓日關係史 關聯 參考文獻目錄

*史料

- 《廣開土王陵碑文》
- 《三國史記》
- 《三國志》
- 《日本書紀》
- 《資治通鑑》
- 《晉書》
- 《後漢書》

*單行本(韓國語)

- 慶星大學校博物館, 2000 《金海大成洞古墳群 I》(釜山)
- 孔錫龜, 198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書景文化社,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 국정도서편찬위원회, 2003 《고등학교 국사》(교육인적자원부, 서울)
- 權五榮, 1999 《복암리고분군》(전남대박물관, 光州)
- 金錫亨, 1966 《초기조일관계연구》(평양)
- 金錫亨, 1988 《고대한일관계사》(한마당, 서울)
- 金世基, 2003 《고분 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學研文化社, 서울)
- 金廷鶴, 1990 《韓國上古史研究》(凡友社, 서울)
- 金哲垞 · 崔柄憲 編, 1986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古代篇》(一志社, 서울)
- 金泰植, 1993 《加耶聯盟史》(一潮閣, 서울)
- 金泰植, 2002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푸른역사, 서울)
- 金泰植, 2004 《CD-ROM 가야사》(미디어채널, 서울)
- 金泰植 · 宋桂鉉, 2003 《韓國의 騎馬民族論》(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果川)
- 金鉉球, 1993 《任那日本府研究 -韓半島南部經營論批判-》(一潮閣, 서울)
- 盧重國 외 5인, 1998 《가야문화도록》(경상북도, 대구)
-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一潮閣, 서울)
- 盧泰敦, 1999 《고구려사 연구》(사계절, 서울)
- 李丙燾, 1959 《韓國史 · 古代篇》(震檀學會)
- 文安植 · 이대석, 2004 《한국고대의 지방사회 -영산강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혜

안, 서울)

- 文化財管理局, 1973 《武寧王陵發掘調查報告書》
- 朴淳發, 2001 《漢城百濟의 誕生》(서경문화사, 서울)
- 朴時亨, 1966 《廣開土王陵碑》(社會科學院出版社, 平壤)
- 朴眞奭, 1993 《호태왕비와 고대조일관계연구》(연변대출판사)
- 朴天秀 외 3인, 2003 《加耶의 遺蹟과 遺物》(학연문화사, 서울)
- 白承玉, 2003 《가야 각국사 연구》(혜안, 서울)
- 白承忠, 1995 《加耶의 地域聯盟史 研究》(釜山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文學博士 學位論文)
- 邊太燮, 2002 《韓國史通論: 四訂版》(三英社, 서울)
-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2001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혜안, 서울)
-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2003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혜안, 서울)
- 延敏洙, 1998 《고대한일관계사》(혜안, 서울)
- 王健群 著, 林東錫 譯, 1985 《廣開土王碑研究》(역민사, 서울)
- 李根雨, 1994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城南)
- 李蘭暎·金斗喆, 1999 《韓國의 馬具》(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果川)
- 李丙燾, 1959 《韓國史 古代篇》(震檀學會, 서울)
- 李丙燾, 1976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서울)
- 李成市 지음, 朴慶嫻 옮김, 2001 《만들어진 고대 -근대 국민국가의 동아시아 이야기-》(도서출판 삼인, 서울)
- 李仁哲, 2000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백산자료원, 서울)
- 李亨求·朴魯姬, 1986 《廣開土大王陵碑新研究》(同和出版公社, 서울)
- 林基中, 199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東國大學校出版部, 서울)
- 林起煥,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한나래, 서울)
- 任世權·李宇泰, 2002 《韓國金石文集(1)》(韓國國學振興院, 안동)
- 林永珍, 1995 《百濟漢城時代古墳研究》(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丁仲煥, 1962 《加羅史草》
- 千寬宇, 1991 《加耶史研究》(一朝閣, 서울)
-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一志社, 서울)
- 한국고고학회 편, 2000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한국고고학회, 釜山)

*單行本(日本語)

- 江上波夫, 1992 《江上波夫の日本古代史 -騎馬民族說四十五年-》(大巧社, 東京)
- 綱野善彦著, 李根雨譯, 1999 《日本社會의 歷史(上)》(한림신서 일본학총서 42, 도서출판 소화)

- 宮崎市定, 1992 《謎の七支刀 -五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中央公論社)
- 金廷鶴, 1977 《任那と日本》(小學館)
- 今西龍, 1970 《朝鮮古史の研究》(國書刊行會)
- 金鉉球, 1985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吉川弘文館, 東京)
- 埼玉縣教育委員會, 1980 《埼玉稻荷山古墳》
- 吉田孝, 1997 《日本の誕生》(岩波新書, 東京)
- 那珂通世, 1958 《外交繹史》 제1권 (那珂通世遺書, 岩波書店, 東京)
- 大濱徹也 外 11名, 2001 《中學生の社會科 歴史 -日本の歩みと世界》(日本文教出版, 大阪)
- 大山誠一, 1999 《日本古代の外交と地方行政》(吉川弘文館, 東京)
- 東京國立博物館編, 1993 《江田船山古墳出土 國寶 銀象嵌銘大刀》(吉川弘文館, 東京)
- 鈴木英夫, 1996 《古代倭國と朝鮮諸國》(青木書店, 東京)
- 末松保和, 1949 《任那興亡史》(大八洲出版); 1956, 再版(吉川弘文館, 東京)
- 武田幸男, 1988 《廣開土王碑原石拓本集成》(東京大學出版會, 東京)
-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廣開土王碑'研究序說-》(岩波書店, 東京)
- 白崎昭一郎, 1993 《廣開土王碑文の研究》(吉川弘文館, 東京)
- 白石太一郎, 1999 《古墳とヤマト政權》(文春新書 036)
- 白石太一郎・上野祥史 編, 2004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10 (第5回 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 福山敏男, 1969 《日本建築史研究》
- 福山敏男, 1971 《論集日本文化の起源》 第二卷(平凡社, 東京)
-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岩波書店, 東京)
-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塙書房, 東京)
- 山川出版社 編, 2002 《高校 要説世界史A 改訂版》(東京)
- 三品彰英, 1962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卷(東京)
- 森浩一 編, 1993 《馬の文化叢書 第一卷 古代 -埋もれた馬文化》(馬事文化財團, 横浜)
- 西尾幹二 外 13名, 2001 《中學社會 新しい歴史教科書》(扶桑社, 東京)
- 水谷悌二郎, 1977 《好太王碑考》(開明書院, 東京)
- 鈴木英夫, 1996 《古代の倭國と朝鮮諸國》(青木書店, 東京)
- 鈴木靖民 編, 2002 《倭國と東アジア》(日本の時代史 2, 吉川弘文館)
- 王健群, 1984 《好太王碑の研究》(雄渾社, 東京)
- 李永植, 1993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吉川弘文館, 東京)
- 李進熙, 1972 《廣開土王碑の研究》(吉川弘文館, 東京)
- 田中俊明, 1992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 -加耶琴だけが残った-》(吉川弘文館, 東京)
- 井上秀雄, 1973 《任那日本府と倭》(東出版, 東京)
- 佐伯有清, 1974 《研究史 廣開土王碑》(吉川弘文館, 東京)

- 佐伯有清, 1976 《廣開土王碑と參謀本部》(吉川弘文館, 東京)
 佐伯有清, 1977 《七支刀と廣開土王碑》(吉川弘文館, 東京)
 増田精一, 2001 《日本國の成立》(學生社, 東京)
 池內宏, 1947 《日本上代史の一研究》(近藤書店); 1970, 再版(中央公論美術出版)
 津田左右吉, 1924 《古事記及日本書紀の研究》(岩波書店, 東京)
 村尾次郎 外 25名, 2002 《高校 最新日本史》(明成社, 東京)
 坂本太郎, 1964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 上》(東京大學出版會)

*單行本(中國語)

- 耿鐵華, 1994 《好太王碑新考》(吉林人民出版社, 吉林)
 楊守敬, 1909 《高麗好大王碑》
 王健群, 1984 《好太王碑研究》(吉林出版社, 吉林)
 魏存成, 1994 《高句麗考古》(吉林大學, 吉林)

*論文(韓國語)

- 權五榮, 1988 <4세기 百濟의 地方支配方式 一例> 《韓國史論》 18 (서울대 國史學科, 서울)
 金大煥, 2001 <嶺南地方 積石木槨墓의 時空的 變遷> 《嶺南考古學》 29 (嶺南考古學會, 大邱)
 金斗喆, 2002 <馬具와 地域間交流> 《第5回 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發表要旨》(日本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金斗喆, 2003 <무기·무구 및 마구를 통해 본 가야의 전쟁>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해안, 서울)
 金錫亨, 1963 <삼한 삼국의 일본열도 내 분국에 대하여> 《역사과학》 1963-1
 金泰植, 1994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韓國古代史論叢》 6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서울)
 金泰植, 1994 <咸安 安羅國의 成長과 變遷> 《韓國史研究》 86 (한국사연구회)
 金泰植, 1997 <百濟의 加耶地域 關係史: 交渉과 征服> 《百濟의 中央과 地方》(百濟研究論叢 第5輯,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儒城)
 金泰植, 2003 <初期 古代國家論> 《강좌 한국고대사》 제2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서울)
 金鉉球, 1991 <神功紀 加羅七國 平定記事에 관한 一考察> 《史叢》 39
 김석형, 1988 <삼국사기를 통하여 본 4세기 말 5세기 초의 조일관계에 대하여> 《역사과학》 88-2 (평양)
 盧重國, 1995 <大加耶의 政治·社會構造> 《加耶史研究 -대가야의 政治와 文化-》(慶尙北道, 大邱)

- 盧泰敦, 1975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研究 -成立과 構造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서울)
- 盧泰敦, 1992 <廣開土王陵碑> 《譯註韓國古代金石文》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서울)
- 盧泰敦, 2000 <초기 고대국가의 국가구조와 정치운영> 《韓國古代史研究》 17 (韓國古代史學會 編, 書景文化社, 서울)
- 朴淳發, 1997 <漢城百濟의 中央과 地方> 《백제의 중앙과 지방》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儒城)
- 朴升圭, 1993 <慶南 西南部地域 陶質土器에 대한 研究> 《慶尙史學》 9 (慶尙大學校, 晉州)
- 朴天秀, 2002 <考古資料를 통해 본 古代 韓半島와 日本列島의 相互作用> 《韓國古代史研究》 27 (韓國古代史學會)
- 徐榮洙, 1996 <‘辛卯年記事’의 變상과 원상> 《廣開土好太王碑 研究 100年》 (高句麗研究會 編, 學研文化社, 서울)
- 成洛俊, 1983 <영산강유역의 瓮棺묘 연구> 《百濟文化》 15 (공주사대 백제문화연구소, 공주)
- 成正鏞, 2000 <中西部地域 3~5世紀 鐵製武器의 變遷> 《韓國考古學報》 42 (韓國考古學會)
- 손영중, 2001 <비문의 해석>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사회과학원 편, 도서출판 중심, 서울)
- 宋桂鉉, 2000 <토론 요지: 금관가야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해안, 서울)
- 宋桂鉉, 2001 <4~5세기 동아시아의 갑주> 《4~5世紀 東亞細亞 社會와 加耶》 (김해시 발표요지)
- 宋桂鉉, 2001 <전쟁의 양상과 사회의 변화> 《고대의 전쟁과 무기》 (제5회 부산북천박물관 학술발표대회, 부산)
- 申敬澈, 1992 <金官加耶의 成立과 對外關係> 《伽耶와 東아시아》 (金海市 加耶史國際學術會議 發表要旨, 金海)
- 申敬澈, 1993 <加耶成立前後의 諸問題> 《伽耶と古代東アジア》 (新人物往來社, 東京)
- 申敬澈, 1994 <加耶 初期馬具에 대하여> 《釜大史學》 18 (釜山大學校, 釜山)
- 申敬澈, 1995 <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 《釜大史學》 19 (釜山大學校, 釜山)
- 申敬澈, 2000 <금관가야의 성립과 연맹의 형성>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해안, 서울)
- 申敬澈, 2004 <筒形銅器論> 《福岡大學考古學論集 -小田富士雄先生退官記念-》 (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事業會, 福岡)
- 安在晔·宋桂鉉, 1986 <古式陶質土器에 관한 약간의 고찰 -義昌 大坪里出土品을 통하여-> 《嶺南考古學》 1 (嶺南考古學會, 大邱)
- 安春培, 1992 <廣開土王陵碑文 研究(I) -碑文의 文段과 解釋을 中心으로-> 《考古歷史學誌》 8 (東亞大學校博物館, 釜山)

- 余昊奎, 1999 <高句麗 中期의 武器體系와 兵種構成> 《韓國軍事史研究》 2호 (國防軍史研究所, 서울)
- 余昊奎, 2000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對前燕關係를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36 (역사비평사, 서울)
- 余昊奎, 2000 <고구려 초기 정치체제의 성격과 성립기반> 《韓國古代史研究》 17 (韓國古代史學會)
- 延敏洙, 1987 <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倭關係 記事의 檢討> 《東國史學》 21 (東國大學校, 서울)
- 尹龍九, 1989 <樂浪前期 郡縣支配勢力의 種族系統과 性格> 《歷史學報》 126 (歷史學會, 서울)
- 李道學, 1990 <百濟 七支刀 銘文의 再解釋> 《韓國學報》 60 (서울)
- 李丙燾, 1970 <近肖古王拓境考> 《百濟研究》 1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李丙燾, 1974 <百濟七支刀考> 《震檀學報》 38 (진단학회, 서울)
- 李成市, 1994 <表象としての廣開土王碑文> 《思想》 842
- 李永植, 1985 <加耶諸國의 國家形成問題> 《白山學報》 32
- 李永植, 1995 <百濟의 加耶進出過程> 《韓國古代史論叢》 7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서울)
- 이정호, 1999 <영산강유역의 고분 변천과정과 그 배경> 《榮山江流域의 古代社會》 (崔盛洛編著, 學研文化社, 서울)
- 李鍾旭, 1992 <廣開土王陵碑 및 “三國史記”에 보이는 ‘倭兵’의 正體> 《韓國史市民講座》 11 (一潮閣, 서울)
- 李賢珠, 2002 <福泉洞古墳群의 武器副葬樣相을 통해 본 軍事組織의 形態> 《博物館研究論集》 9 (부산박물관, 부산)
- 李賢惠, 1988 <4세기 加耶社會의 交易體系의 變遷> 《韓國古代史研究》 1 (한국고대사연구회)
- 李賢惠, 1996 <金海地域의 古代 聚落과 城>, 《韓國古代史論叢》 8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서울)
- 李賢惠, 2000 <4~5세기 영산강 유역 토착세력의 성격> 《歷史學報》 166 (歷史學會, 서울)
- 林起煥, 1995 <4세기 고구려의 樂浪·帶方地域 經營> 《歷史學報》 147 (歷史學會, 서울)
- 井上主稅, 2003 <김해 및 부산지역 古墳 출토 倭系遺物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51 (韓國考古學會, 大邱)
- 鄭寅普, 1955 <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 《庸齋白樂濬博士還甲紀念國學論叢》 (思想界社)
- 丁仲煥, 1972 <日本書紀에 인용된 百濟三書에 대하여> 《亞細亞學報》 10 (서울)
- 鄭澄元·洪漕植, 2000 <筒形銅器研究> 《福岡大學綜合研究所報》 第240號 (綜合科學編 第3號, 福岡)

- 趙榮濟, 1986 <西部慶南 爐形土器에 대한 一考察> 《慶尙史學》 2 (慶尙大學校, 晉州)
- 佐佐木憲一, 2000 <日本考古學에 있어서 古代國家論 -理論研究의 現狀-> 《東亞細亞의 國家形成》 제10회 百濟研究國際學術會議 발표요지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儒城)
- 朱甫敏, 1995 <序說 -加耶史의 새로운 定立을 위하여-> 《加耶史研究 -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慶尙北道, 大邱)
- 千寬宇, 1977·1978 <復元加耶史> 上·中·下 《文學과 知性》 28·29·31 (문학과 지성사, 서울)
- 千寬宇, 1979 <廣開土王陵碑文 再論> 《全海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 崔秉鉉, 1992 <考古學的으로 본 加耶와 日本의 關係> 《韓國史市民講座》 11 (一潮閣, 서울)
- 崔鍾圭, 1990 <美術上으로 본 韓日關係 -陶質土器와 須惠器-> 《古代韓日文化交流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城南)
- 韓永熙·李相洙, 1990 <昌寧 校洞 11號墳 出土 有銘圓頭大刀> 《考古學誌》 2 (韓國考古美術研究所, 서울)

*論文(日本語)

- 江上波夫, 1984 <日本における 國家の形成 -倭人の國から大和朝廷へ-> 《東洋研究》 72
- 高寬敏, 1990 <永樂十年 高句麗廣開土王の新羅救援戰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7
- 高寬敏, 1993 <《日本書紀》 所引 <百濟本記> に関する研究> 《高句麗·渤海と古代日本》 (雄山閣, 東京)
- 高寬敏, 1994 <《日本書紀》 所引 <百濟記> と <百濟新撰> に関する研究> 《朝大學報》 1
- 菅政友, 1891 <高麗好太王碑銘考> 《史學雜誌》 24(2-11)
- 菅政友, 1893 <任那考>; 1907 《菅政友全集》
- 橋本達也, 2002 <古墳時代甲冑の系譜 -朝鮮半島との關係-> 《第5回 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發表要旨》 (國立歷史民俗博物館 발표요지, 佐倉)
- 今西龍, 1915 <廣開土境好太王陵碑に就て> 《訂正增補 大日本時代史》 古代下卷 附錄
- 旗田巍, 1975 <三國史記新羅本紀にあらわれた倭> 《日本文化と朝鮮》 2
- 那珂通世, 1888 <日本上古代考> 《文》 1-8·9
- 那珂通世, 1893 <高麗古碑考> 《史學雜誌》 49(4-12)
- 那珂通世, 1896 <朝鮮古史考(加羅考)> 《史學雜誌》 7-3
- 大山誠一, 1980 <所謂'任那日本府'の成立について> 上·中·下 《古代文化》 32-9·11·12 (古代學協會, 京都)
- 大原利武, 1934 <任那加耶考> 《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集》
- 大澤正己, 2002 <金屬學的分析からみた倭と加耶の鐵 -日韓の製鐵·鍛冶技術-> 《第5回 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發表要旨》 (國立歷史民俗

博物館, 佐倉)

- 都出比呂志, 1991 <日本古代の國家形成論序説 -前方後圓墳體制の提唱-> 《日本史研究》
343
- 都出比呂志, 1996 <國家形成の諸段階> 《歴史評論》 551
- 都出比呂志, 1998 <總論 -彌生から古墳へ> 《古代國家はこうして生まれた》(角川書店, 東京)
- 東潮, 2002 <弁辰と加耶の鐵> 《第5回 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發表要旨》(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 藤間生大, 1968 <七支刀> 《倭の五王》(岩波新書, 東京)
- 藤尾愼一郎, 2002 <彌生時代の鐵> 《第5回 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發表要旨》(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 柳本照男, 2001 <金海大成洞古墳群出土の倭系遺物について> 《久保和士君追悼考古論集》
- 末松保和, 1959 <高句麗好太王碑文> 《歴史教育》 74
- 木村誠, 2000 <百濟史料としての七支刀銘文> 《人文學報》 第306號(東京都立大學 人文學部)
- 木下禮仁, 1961 <“日本書紀”にみえる‘百濟史料’の史料的價值について> 《朝鮮學報》 21・22合(天理)
- 武末純一, 2002 <日本の九州および近畿地域における韓國系遺物 -土器・鐵器生産關係を中心-> 《古代 東亞細亞와 三韓・三國의 交渉》(북천박물관, 부산)
- 武田幸男, 1978 <高句麗好太王碑文にみる歸王について>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上卷(吉川弘文館)
- 武田幸男, 1978 <廣開土王碑辛卯年條の再吟味> 《古代史論叢》(井上光貞博士還曆記念會編)
- 武田幸男, 1985 <四~五世紀の朝鮮諸國> 《シンポジウム好太王碑》
- 白石太一郎, 2002 <倭と加耶の交流の歴史的意義>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第五回國立歷史民俗博物館國際シンポジウム, 佐倉)
- 福山敏男, 1951 <石上神宮の七支刀 補考> 《美術研究》 162
- 福山敏男, 1951 <石上神宮の七支刀> 《美術研究》 158
- 福山敏男, 1952 <石上神宮の七支刀 再補> 《美術研究》 165
- 福永伸哉, 1998 <對半島交渉から見た古墳時代倭政權の性格 -4~5世紀における日韓交渉の考古學的再檢討-> 《青丘學術論集》 12(財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 榎本杜人, 1952 <石上神宮の七支刀と其銘文> 《朝鮮學報》 3(朝鮮學會, 天理)
- 濱田耕策, 1974 <高句麗廣開土王碑文の研究 -碑文の構造と史臣の筆法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龍溪書舍, 東京)
- 山尾幸久, 1978 <任那に關する一試論-史料の檢討を中心に->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下卷

- 末松保和博士古稀記念會編(吉川弘文館, 東京)
- 山尾幸久, 1989 <百濟三書と日本書紀> 《古代の日朝關係》(塙書房, 東京)
- 山田良三, 2000 <筒形銅器の再考察> 《橿原考古學研究所紀要 考古學論集》第23冊(奈良)
- 三宅米吉, 1898 <高麗古碑考> 《考古學雜誌》第2編 第1~3號(日本考古學會)
- 三宅米吉, 1898 <高麗古碑考追加> 《考古學雜誌》第2編 第5號(日本考古學會)
- 三品彰英, 1962 <百濟記・百濟新撰・百濟本記>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吉川弘文館, 東京)
- 三品彰英, 1962 <石上神宮の七支刀>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上(吉川弘文館, 東京)
- 上田正昭, 1971 <石上神宮と七支刀> 《日本なかの朝鮮文化》9
- 西田長男, 1956 <石上神宮の七支刀の銘文> 《日本古典の史的研究》(理想社)
- 星野恒, 1892 <七枝刀考> 《史學雜誌》37(東京)
- 成正鏞, 2003 <百濟漢城期 騎乘馬具の様相と起源> 《古代武器研究》4(古代武器研究會・滋賀縣立大學考古學研究室, 彦根)
- 小野山節, 1959 <馬具と乘馬の風習> 《世界考古學大系三 日本3 古墳時代》(平凡社, 東京)
- 小野山節, 1966 <日本發見の初期の馬具> 《考古學雜誌》52-2(日本考古學會)
- 松木武彦, 1999 <古墳時代の武裝と戦闘> 《戦いのシステムと對外戰略》(東洋書林, 東京)
- 水谷悌二郎, 1959 <好太王碑考> 《書品》100號
- 神保公子, 1981 <七支刀銘文の解釋をめぐって>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3
- 延敏洙, 1994 <七支刀銘文の再檢討 -年號の問題と製作年代を中心に-> 《年報 朝鮮學》第4號
- 鈴木英夫, 1987 <加耶・百濟と倭 -'任那日本府'論-> 《朝鮮史研究會論文集》24
- 鈴木靖民, 1983 <石上神宮七支刀銘についての一試論> 《坂本太郎頌壽記念日本史學論集》上
- 鈴木靖民, 1984 <東アジア諸民族の國家形成と大和王權> 《岩波講座 日本歴史》1(原始・古代1, 岩波書店, 東京)
- 鈴木靖民, 1988 <武(雄略)の王權と東アジア> 《雄略天皇とその時代》(吉川弘文館, 東京)
- 鈴木靖民, 1988 <好太王碑の倭の記事と倭の實體> 《好太王碑と集安の壁畫古墳》(讀賣テレビ放送編, 木耳社, 東京)
- 鈴木靖民, 1990 <歴史學と民族學(文化人類學) -日本古代史における首長制社會論の試み-> 《日本民俗研究大系》10(國學院大學, 東京)
- 鈴木靖民, 2002 <倭國と東アジア> 《倭國と東アジア》(鈴木靖民編, 日本の時代史 2, 吉川弘文館)
- 栗原朋信, 1970 <七支刀の銘文よりみた日本と百濟 東晉の關係> 《歴史教育》18-4
- 前間恭作, 1919 <輯安高句麗廣開土王陵碑> 《朝鮮金石總覽》上
- 田中晋作, 1990 <百舌鳥・古市古墳群の被葬者の性格について> 《古代學研究》122(古代學

協會)

- 田中晋作, 1998 <筒形銅器について> 《古代學研究》 151
- 田中晋作, 2000 <巴形銅器について> 《古代學研究》 151
- 田中琢, 1991 <倭人争亂> 《日本の歴史》 2 (集英社, 東京)
- 鮎貝房之進, 1937 <日本書紀朝鮮關係地名攷> 《雜攷》 7 上・下卷
- 井上光貞, 1980 <雄略期における王權と東アジア> 《日本古代史講座》 4 (學生社, 東京)
- 早乙女雅博・東野治之, 1990 <朝鮮半島出土の有銘環頭大刀> 《MUSEUM》 467
- 酒井清治, 2001 <倭における初期須惠器の系譜と渡來人> 《4~5世紀 東亞細亞 社會와 加耶》
(제7회 加耶史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김혜)
- 中村潤子, 1991 <騎馬民族説の考古學> 《考古學 その見方と解釋》 (筑摩書房)
- 津田左右吉, 1913 <任那疆域考> 《朝鮮歴史地理研究》 1
- 請田正幸, 1974 <六世紀前期の日朝關係 -任那'日本府'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1; 1974 《古代朝鮮と日本》 (朝鮮史研究會編, 龍溪書舎, 東京)
- 村上英之助, 1978 <考古學から見た七支刀の製作年代> 《考古學研究》 25-3
- 樋口隆康, 1972 <武寧王陵出土鏡と七子鏡> 《史林》 55-4
- 坂本太郎, 1961 <繼體紀の史料批判> 《國學院雜誌》 62-9
- 穴澤義功, 2002 <日本古代の鐵生産> 《第5回 歷博國際シンポジウム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
倭と加耶の交流 發表要旨》 (國立歷史民俗博物館, 佐倉)
- 和田晴吾, 1992 <群集墳と終末期古墳> 《新版日本の古代》 (角川書店, 東京)
- 横井忠直, 1889 <高句麗古碑考> 《會餘錄》 제5집 (亞細亞協會)

*論文(中國語)

- 金毓黻, 1934 <晉高麗好太王碑> 《奉天通志》
- 羅振玉, 1909 <高麗好太王碑釋文> 《神州國光集》 第9集
- 榮禧, 1903 <高句麗永樂太王墓碑文> 《古高句麗永樂太王墓碑文攷》

【史料】

4세기 한일관계사 관련 사료

廣開土王陵碑文 原文

9	又	制	守	墓	人	自	今	以	後	不	得	更	相	轉	賣	雖	有	富	足	之	者	亦	不	得	擅	買	其	有	違	令	賣	者	刑	之	買	人	制	令	守	墓	之									
8	不	安	石	碑	致	使	守	墓	人	烟	戶	差	錯	唯	國	岡	上	廣	開	土	境	好	太	王	盡	為	祖	先	王	墓	上	立	碑	銘	其	烟	戶	不	令	差	錯									
7	其	不	知	法	則	復	取	舊	民	一	百	十	家	合	新	舊	守	墓	戶	國	烟	卅	看	烟	三	百	都	合	三	百	卅	家	自	上	祖	先	王	以	來	墓	上									
6	若	吾	萬	年	之	後	安	守	墓	者	但	取	吾	躬	巡	所	略	言	祖	王	先	王	但	教	取	遠	近	舊	民	守	墓	酒	掃	吾	慮	舊	民	轉	當	羸	劣									
5	家	為	看	烟	國	岡	上	廣	開	土	境	好	太	王	存	時	教	言	祖	王	先	王	但	教	取	遠	近	舊	民	守	墓	酒	掃	吾	慮	舊	民	轉	當	羸	劣									
4	城	一	家	為	國	烟	那	旦	城	國	烟	一	看	烟	勾	牟	城	一	家	為	看	烟	於	利	城	八	家	為	看	烟	比	利	城	三	家	為	看	烟	細	城	那									
3	城	國	烟	二	看	烟	八	垓	城	國	烟	一	看	烟	六	家	為	看	烟	農	賣	城	國	烟	一	看	烟	二	奧	利	城	國	烟	二	看	烟	七	閏	奴	城	國	烟	二	看	烟	卅	二	古	牟	妻
2	殘	南	居	韓	國	烟	一	看	烟	五	大	山	韓	城	六	家	為	看	烟	農	賣	城	國	烟	一	看	烟	二	奧	利	城	國	烟	二	看	烟	七	閏	奴	城	國	烟	二	看	烟	卅	二	古	牟	妻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第四面

第三面

1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2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3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4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5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6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7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8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9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10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11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12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13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14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15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16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17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18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19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20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21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22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23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24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25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26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27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28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29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30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31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32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33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34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35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36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37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38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39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40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41 城廿年庚戌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國駭

第一面

1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出自北夫餘天帝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生而有聖
 2 巡幸南下路由夫餘奄利大水王臨津言曰我是皇天之子母河伯女郎剖卵降世生而有聖
 3 連葭浮龜然後造渡於沸流谷忽本西城山上而建都焉不樂世位天遣黃龍來下迎王王於忽本東岡履
 4 龍首昇天顧命世子儒留王以道興治大朱留王紹承基業選至十七世孫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5 二九登祚号爲永樂太王恩澤洽于皇天威武振被四海掃除
 6 弔卅有九寇駕棄國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遷就山陵於是立碑銘其動績以示後世焉其詞曰
 7 永樂五年歲在乙未王以稗麗不
 8 羊不可稱數於是旋駕因過襄平道東來
 9 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
 10 首攻取壹八城白模盧城各模盧城幹氏利城
 11 利城雜珍城奧利城勾牟城古模耶羅城莫

第二面

1 利城彌鄒城也利城大山韓城掃加城敦拔城
 2 城燕婁城析支利城巖門
 3 城會
 4 歸穴
 5 迷之愆錄其後順之誠
 6 息慎土谷因便抄得莫
 7 通王巡下平穰而新羅遣使白王云倭人滿其國境潰破城池以奴客爲民歸王請命太王恩慈矜其忠誠
 8 特遣使還告以密計十年庚子教遣步騎五萬往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軍方至倭賊退
 9 卻乘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即歸服安羅人戍兵師
 10 十九盡煞抑徙安羅人戍兵師